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不讀字에 대한 考察*

南豊鉉**

요 약

漢文을 釋讀할 때 漢字의 기능이나 뜻이 吐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 읽지 않는 漢字를 不讀字라고 한다. 이 不讀字는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아울러 漢文을 國語로 읽어 受容하는 양상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日本의 漢文訓讀과도 脈絡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不讀字는 모두 35字였다. 그 가운데 29字가 虛辭字이고 實辭는 6字이니 이는 고대인이 한문의 문법을 소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같은 글자가 宗派 또는 시대에 따라 不讀字가 되기도 하고 讀字가 되기도 하였다. 부독자는 거의가 訓讀字인데 한문의 문법이나 표현이 국어와 차이가 있어서 읽히지 않아 부독자가 된 것도 있다. 부독자의 기능이나 훈을 나타내는 토는 부독자인 한자에 직접 붙는 경우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한자의 속에 써 넣기도 하였었다.

*핵심어: 不讀字, 讀字, 日本의 漢文訓讀. 虛辭字, 漢文의 受容 樣相

---

* 이 글은 2006년 8월 21일 日本 北海道大學 大學院 文學硏究科에서 주최한 國際 워크숍 -「典籍交流(訓讀)와 漢字情報」-에서 발표했던 原稿를 修訂補完한 것임.

** 檀國大 名譽敎授

1. 序 言

韓國에 漢字·漢文이 들어온 것은 紀元前일 것으로 推定되지만 그를 受容한 初期의 事情과 그 讀法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三國時代의 金石文 資料(5-6世紀)에 訓讀字들이 쓰이고 있어 이 時代에 漢文의 訓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漢文의 習得 方法에 대한 具體的인 狀況은 짐작하기 어렵다.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던 時期(660년대)에는 스승과 弟子 사이에 傳授되는 漢文讀法인 口訣이 이미 있었고 吐도 발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薛聰이 九經을 우리말(方言)로 읽어 弟子들에게 敎授하였다고 하는 7세기 후반 내지 8세기 초에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高麗時代의 釋讀口訣에 가까운 口訣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釋讀口訣을 具體的으로 보여 주는 資料는 新羅時代의 것(8世紀 中半)으로 推定되는 것도 있지만[1] 高麗時代인 10世紀에서부터 13世紀 中葉에 걸치는 것들이 여럿 發掘되어 있다. 이 口訣은 点吐釋讀口訣과 字吐釋讀口訣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点吐釋讀口訣은 현재 그 解讀이 進行中에 있고 또 字吐釋讀口訣에 의지하여 解讀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비하면 字吐釋讀口訣은 그 全般的인 讀法이 거의 밝혀져 있어 이 글에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不讀字들을 整理하여 보기로 한다.

韓國의 釋讀口訣은 漢文에 吐를 달아 그 漢文을 國語로 解釋하여 읽는 讀法이다. 이 漢文釋讀은 漢文의 構成素를 逐字的으로 韓國語로 해석하여 읽는 것이었다. 이 때 孤立語인 中國語의 文章인 漢文을 膠

1) 「華嚴文義要決」의 筆寫年代는 8세기 말 내지 9세기 초이지만 그 点吐釋讀口訣의 著者는 8세기 中葉人으로 추정되고 있다. 小林芳規(2002), 「韓國の角筆点と古訓点との關係」, 『口訣硏究』 8 및 金永旭(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硏究」, 『口訣硏究』 10 參照.

着語인 國語로 바꾸는 내용을 表示해 주는 것이 吐이다. 吐는 膠着語인 國語의 文法形態인 助詞나 語尾가 主를 이루고 末音添記나 全訓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또 漢文의 文法形態인 語助辭의 機能은 한국어의 文法形態인 吐로 표시되는 예가 많은데 이 경우 釋讀에 있어서는 그 語助辭를 읽지 않고 吐만을 읽는다. 또 吐가 漢字의 訓 全體를 나타내어도 그 漢字를 읽지 않고 吐만을 읽는다. 全訓讀으로 표시된 漢字까지 읽으면 같은 內容의 우리말과 漢字가 重複되어 國語文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釋讀에 있어서 漢字의 뜻이나 機能이 이미 토나 文脈에 표시되어 있어 읽지 않는 漢字를 종래 [ ] 또는 { } 속에 넣고 不讀字라 불러왔다.[2] 이 不讀字는 漢文 텍스트를 韓國人들이 理解하고 受容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韓國의 釋讀法이 가진 중요한 樣相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글에서 그 全般的인 檢討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口訣은 個人의 메모적인 性格도 있지만 師弟間에 傳承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傳承過程에서 여러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이 不讀字의 觀察은 이러한 文化的인 사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과 日本은 같은 經典들을 受容하였고 같은 膠着語로서 言語構造가 類似하여 같은 經典의 解釋을 對照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宗教的으로도 影響의 授受關係가 있는데 그 具體的인 樣相이 이 不讀字의 用法에도 反映되어 있을 可能性을 檢證해 볼 必要도 있다. 이들을 比較하면 言語的인 면이나 文化史的인 면에서 흥미 있는 사실들이 드러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長期間에 걸친 作業을 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글이 이러한 作業의 한

2) '不讀字'에 대하여서는 尹幸舜(1999)와 (2004)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의 不讀字는 日本文法에서 말하는 助辭나 中國文法에서 말하는 介詞, 語氣詞, 連詞 등의 文法形態에 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종래 써오던 不讀字보다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出發點이 될 것을 期待해 본다.

2. 釋讀口訣의 不讀字에 대한 檢討

이 글에서 이용하는 字吐釋讀口訣 資料는 다음과 같다.

1. 大方廣佛華嚴經疏 卷三十五(11世紀末 乃至 12世紀初 推定). 略號; <華嚴疏>
2. 大方廣佛華嚴經 卷十四(12世紀後半 推定). 略號; <華嚴>
3. 合部金光明經 卷三(13世紀初 推定). 略號; <金光>
4. 舊譯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上, 落張 5枚(13世紀前半期 推定). 略號; <舊仁>
5. 瑜伽師地論 卷卅(13世紀 中半 推定). 略號; <瑜伽>

例文은 먼저 漢文으로 된 原文을 제시한 다음 그에 대한 釋讀文을 國語의 語順으로 再排列하여 제시한다. 釋讀文 가운데에서 不讀字는 [ ]표로 나타내고 이 글자가 不讀字임을 알려 주는 형태들에 밑줄을 그은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한다.

2.1. 者 ㄱ/n

1-1) 然此法者 非有處所 非無處所 / 然ᄒᆞᆫᄃᆞ [此]ㅣ 法ㄱ[者] 處所 有ᄒᆞᄀᆞᄆᆞ 非ᄋᆞᆺ가 處所 無ᄒᆞᄀᆞᄆᆞ 非ᄋᆞᆺ가<華嚴疏13,20>

1-2) 世俗正法施設圓滿者 謂卽彼補特迦羅 値佛出世 / 世俗正法施設圓滿ㅣㅣᄂᆞᆫᄀᆞᄉᆞᄀᆞ[者] 謂ᄀᆞ 卽ᄀᆞ 彼 補特迦羅ㅣ 佛ㅣ 出世ᄂᆞ白ᄂᆞ ᄇᆞᄉᆞᆫᄃᆞ 値白가<瑜伽3,1>

'者'는 漢文에서 主題를 나타내는 語氣詞인데 國語로는 補助詞 'ㄱ(ㄴ)/n'이 이에 대응한다.[3] 1-1), 1-2)에서는 [者]의 앞 글자의 吐에 包含된 'ㄱ/n'이 주제를 나타내는 토이다. 즉 1-1)의 '法'자에 현토된 'ㄱ'자와 1-2)의 '圓滿'에 현토된 'ㅂㅣㅅㄱㅅㄱ/itahʌntʌn'의 끝 '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吐를 따라가며 읽다 보면 '者'는 읽을 기회가 없어지고 억지로 읽으면 非文이 된다. 즉 이 '者'자는 不讀字로 釋讀되는 것이다.

2-1) 何者 爲生死最初際 何者 爲生死最後際 / 何ᄒᆞᆫㄱᄂᆞᆫ[者] [爲]生死ㄴ 最ㅅ 初際ㅅᄋᆞᆫᄀᆞ 何ᄒᆞᆫㄱᄂᆞᆫ[者] [爲]生死ㄴ 最ㅅ 後際ㅅᄂᆞᆷᄌᆞᄒᆞᄆᆞᆫᄃᆞᆯᄋᆞᆫᄃᆞᆯᄂᆞᆫᄀᆞ<華嚴疏 8,12-13>

2-2) 吾曹今者 各有所求 / 吾ᄋᆞᆯᄃᆞ 曹ㄱ 今ᄋᆞᆫㄱ[者] 各ᄀᆞᄀᆞᆨ 求ᄂᆞᆷᄃᆞ 所ᄂᆞᆫ [有]ㅆᄅᆞᄒᆞᄂᆞᆫㄱ ㅣㅁ<華嚴疏12,12>

이 '者'는 疑問詞 '何', 時間辭 '今'에 接尾된 것이다. 이 '者'는 名詞句를 만드는 小品詞인데 釋讀에서는 文脈에 그 意味가 包含되고 吐로는 표시되지 않았다. 國語에는 '何'나 '今'에 대응하는 말에 '者'에 대응하는 말을 접미시키는 文法이 없어 이 '者'를 읽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文章이 된다.[4]

3-1) 有二種 補特伽羅 多分所顯 一者異生 二者有學 / 二種 補特伽羅

3) 이 글에서 사용하는 漢文文法 用語는 楊伯俊著·波多野太郎外譯(1956), 『中國文語文法』(江南書院, 日本 東京)에 따랐다.

4) '何ᄒᆞᆫㄱᄂᆞᆫ'과 '今ᄋᆞᆫㄱ'의 동명사어미 'ㄱ'이 '者'자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ㄱ'은 釋讀文脈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별히 '者'자의 기능에 대응시키고자 한 釋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ᄒᆞ 多分 顯ᄂᆞᆨ 所ㅣᄇᆞᆫ 有ᄂᆞᆨㅣㅣ 一十ㄱ[者] 異生ㅅ 二者 有學ㅅㅣㅣ<瑜伽30,5>

3-2) 一者 於一切法 分別善惡 / 一ᄒᆞ十[者] [於]一切法ᄋᆞ十 善惡ᄂᆞᆫ 分別ᄂᆞᄆᆞᄆᆞㅁ<金光5,2>

이들은 漢文에서 數詞에 '者'가 쓰여 名詞句가 된 것이다. 여기서는 차례를 나타내는 것인데 15世紀 國語에서는 數詞에 '-자히(재)'가 接尾되어 副詞語로 쓰였다. 이 釋讀口訣에서도 處格助詞 '-十/kʌi'가 쓰이어 副詞語로 쓰이는 점은 같다. 3-1)의 '一十ㄱ'의 'ㄱ/n'은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처격형태가 '者'자의 기능에 대응하여 쓰인 것은 아니다. 이 '者'자들의 의미는 文脈에 溶解되고 形態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者'는 한문과 국어가 표현 구조에 차이가 있어서 결과된 不讀字로 보아야 한다. '二者' 以下에는 대체로 懸吐하지 않는 것이 釋讀口訣의 慣行이다.

4-1) 得伏忍者 得空無生忍 / 伏忍ᄂᆞᆫ 得ᄒᆞᆫᄀᆞᄅᆞᆨ[者] 空ᄋᆞ 無生ᄋᆞᄂᆞᆺᄒᆞᆫ 忍ᄂᆞᆫ 得ᄒᆞᆫᄀᆞᄅᆞᆨ<舊仁14,15>

이 '者'는 動詞句에 이어져 行爲者를 나타내는 것이다. 釋讀에서는 '得ᄒᆞᆫᄀᆞ(얻는 이도)'의 'ᄒᆞᆫ'에 그 의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者'자가 不讀字가 된 것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 역시 '者'자가 不讀字가 된 것은 국어의 문법에 맞는 文章을 만드는 과정에서 結果된 것이지 그에 해당하는 形態가 釋讀의 文脈에 쓰인 것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것은 아니다.

2.2. 之 ᄉᆞ/s, ᄒᆞ/ʌi, ᄅᆞ/l

'之'는 漢文에서는 小品詞 또는 助詞(接續)라 하는데 國語에서는 屬格助詞가 그 기능에 對應한다. 現代國語는 屬格助詞가 '의/ʌi' 하나이지만 古代國語에서는 여러 形態가 나타난다.

1-1) 此菩薩 得種種上味……衣服 資生之具 / 此ㅣ 菩薩ㄱ 種ㅈ種ㅈ 上味ㅅ…… 衣服ㅅ 資生[之ㅈ] 具ㅅㅅ乀ㄴ 得ㄱㅅ<華嚴疏10,4>

1-2) 普入一切佛法之門 / 普ㅣ 一切 佛法ㅈ[之] 門ㄱㅅ 入ㅅ未ㅎㅅㅏㄴㅏ<華嚴疏26,7>

1-3) 不生安樂止息之觀 / 安樂止息ㅅ乀ㅈ[之] 觀ㄴ 生ㄹ 不多ㅎㅅㅎ<金光3,7>

1-4) 二者 能令一切 衆生 入於甚深之法 /二者 能ㅎ 一切 衆生ㄴ [於] 甚深ㅅㅂㅈ[之] 法ㄱㅅ 入 令ㅣㅎ<金光4,21>

이 예들에서는 漢文의 '之'를 釋讀에서 無情物體言의 屬格助詞 'ㅈ/s'로 읽어 '之'의 앞에 놓은 것으로 '之'는 不讀字가 된다. 1-1)은 ㅈ을 '之'자의 앞 글자에 붙이지 않고 '之'자의 속에 써 넣었다. 이는 '之'가 ㅈ의 기능에 해당하는 不讀字임을 意識한 懸吐이다. 1-2)는 ㅈ을 體言에, 1-3)과 1-4)는 動名詞語尾 'ㅅ乀ㄴ/hori'와, 'ㅅㅂㅈ/hʌnʌ'에 붙인 것이다.

2-1) 我之身命 必冀存活 / 我ㄹ[之] 身命ㄱ 必ㅅ 冀ㅣㄱ入ㄱ 存活ㅅㅈㅓㅅㅁㅗㄴㅗㄹㅋㅣ<華嚴疏10,20>

2-2) 四者 過於聲聞緣覺之地 / 四者 [於]聲聞ㅓ 緣覺ㅓㅅㅏㄹㄹ[之] 地ㄴ 過ㅅㅎ<金光 3,3>

2-3) 得……人王梵王之所守護恭敬供養 / 人王 梵王ㅅㅅ乀ㄴㄹ[之] 守護ㅅㅎ 恭敬ㅅㅎ 供養ㅅㅎㅅㅏ 所ㄴ 得ㅎ<華嚴2,5>

이는 '之'를 國語의 有情物體言의 屬格助詞 'ᄀᆞ/ㅅ'로 釋讀하고 '之'의 앞에 붙이어 '之'를 不讀字로 만든 예들이다.

3-1) 此菩薩 聞未來諸佛之所修行 / [此]ㅣ 菩薩ㄱ 未來ㄴᆡ 諸ㄱ 佛ᄃᆞ [之] 修行ᄉᆞᄒᆞᄆᆞᄆᆞᄅᆞ 所ㅣ 聞ᄆᆞᄂᆞ<華嚴疏13.13>

이는 '之'를 文脈上 不讀字로 釋讀한 것이다. '佛ᄃᆞ'의 'ᄃᆞ/ti'는 '佛/부톄'의 末音을 懸吐한 것인데 석독구결의 문법에서는 '佛ᄃᆞ' 다음에 屬格形態를 따로 현토하지 않았다.

4-1) 是相前現 如來之身 金色晃耀 / 是 相ㅣ 前現ᄉᆞᄅᆞᄆᆞ 如來ᄅᆞ[之] 身ㅣ 金色 晃耀ᄉᆞᄃᆞᄒᆞ<金光6,17-22>

이는 漢文의 '之'를 古代國語에서 '如來'의 경우에 흔히 쓰이는 屬格形態인 'ᄅᆞ/l'로 對應시키어 '之'의 앞에 놓음으로써 '之'가 不讀字가 된 것이다.

5-1) 頂上白蓋 無量衆寶之所莊嚴 / 頂上ᄋᆞᄂᆡ 白蓋ㄱ 量 無ᄉᆞㄱ 衆寶ᄆᆞ[之] 莊嚴ᄂᆞㄱ 所ㄱ ㅣ<金光6,19>

5-2) 諸行 因緣之所造作 / 諸ㄱ 行ㄴᆡ 因緣ㅣᄆᆞ[之] 造作ᄂᆞㄱ 所ㅣᄀᆞ<華嚴疏18,12>

이는 '之'의 앞에 造格의 'ㅣᄆᆞ/rlo'가 온 例이다. 이 예는 漢文의 'NP+之+所+VP'의 構文을 釋讀할 때 나타난다. 漢文에서는 '之'가 '所VP(NP2)'에 대하여 屬格關係로 이어지던 것을, 國語에서는 NP가 '所'의 뒤에 이어지는 VP에 대하여 갖는 關係가 먼저 실현되어 이 관계를 造格 'ㅣᄆᆞ/rlo'로 나타내고 '所'에 대하여 갖는 한문의 屬格形態 '之'는

읽지 않아 不讀字가 된 것이다. 釋讀口訣에서 'ㄴㅱ + [之]'의 例는 모두 이 '所'로 誘導되는 構文에만 나타난다. ㄴㅱ는 之의 훈이 아니다.

2.3. 之 'ㅣ/i'

漢文의 '之'는 指示代名詞로도 쓰이는데 釋讀口訣에서는 이것을 'ㅣ/ i'로 全訓讀하여 不讀字가 되었다.

1-1) 而自食之 / 而ㅱ 自ㅋㅱ [之]ㅣㄴ 食ㅅナ仝ㅈ<華嚴疏9,16>
1-2) 卽便施之 / 卽ㅊ 便ㅣ [之]ㅣㄴ 施ㅅ카<華嚴疏12,4>
1-3) 菩薩聞之 / 菩薩ㄱ [之]ㅣㄴ 聞ㅁ<華嚴疏16,2>

現代國語에서 '之'는 中稱인 'ㄱ/kʌ'로 解釋하는데 釋讀口訣에서는 近稱인 'ㅣ/i'로 읽은 데서 時代的인 差異가 나타난다. '[之]ㅣ'의 예는 <華嚴疏>에만 나타난다.

2.4. 於, 于 十/kʌi, ㅈ十/akʌi, ㅋ十/ʌikʌi, ㄴ/r

漢文의 '於'는 介詞로 體言에 連結되어 位置, 時間, 比較, 原因 등을 나타낸다. 國語에서는 대체로 處格으로 釋讀되는데 文脈에 따라 對格으로 釋讀되는 例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1-1) 於十方一切佛土……說正法 / [於]十方ㄷ 一切 佛土ㅈ十…… 正法ㄴ 說ㅅㅂㅍㅗ<金光14>
1-2) 我於長夜 愛着其身 / 我ㄱ [於]長夜ㅈ十ㅅㅈ 其 身ㄴ 愛着ㅅㅈ尓<華嚴疏9,17>

이 예들은 '於'가 釋讀에서 處格助詞의 典刑인 'ᄀᆞᆫ/akʌi'로 읽힌 것이다. 漢文의 介詞인 '於'는 NP의 앞에 쓰이는데 그에 대응하는 國語의 助詞 'ᄀᆞᆫ/akʌi'는 NP의 뒤에 연결됨으로써 '於'와 'ᄀᆞᆫ/akʌi'는 서로 떨어지게 된다.

2-1) 入于三昧 起神變 / [于]三昧ᄀᆞᆫ 入ᄂᆞᄀᆞᄉᆞ 神變ᄒᆞ 起ᄂᆞᄆᆞᆷ<華嚴15,16>

이는 漢文에서 '於'와 같은 機能을 하는 介詞 '于'를 'ᄀᆞᆫ/akʌi'로 대응시켜 懸吐하고 不讀字로 釋讀한 예이다. '于'의 用例는 극히 드물어 이것이 唯一한 예이다.

3-1) 施於我 / [於]我ᄅᆞᆫ 施ᄂᆞᄅᆞᄋᆞᆨᄀᆞᆯ立ᄂᆞᆫᄀᆞᆫ<華嚴疏11,1>
3-2) 於衆生 無所饒益 / [於]衆生ᄅᆞᆫᄀᆞ 饒益ᄂᆞᄆᆞ 所ᄀᆞ 無ᄒᆞᆫᄃᆞᄒᆞᄀᆞᄒᆞᆫ<華嚴疏12,16>
3-3) 又於正信 長者居士婆羅門等 獲得種種利養恭敬 / 又 [於]正信ᄂᆞᄒᆞᆫ 長者ᄋᆞ 居士ᄋᆞ 婆羅門ᄋᆞ等ᄂᆞᄀᆞ ᄅᆞᆫ 種種ᄒᆞ 利養恭敬ᄒᆞ 獲得ᄂᆞᄆᆞᄋᆞ<瑜伽18,23>
3-4) 於餘飮食臥具等 喜足 / [於]餘 飮食ᄋᆞ 臥具ᄋᆞ 等ᄂᆞᄀᆞ ᄅᆞᆫ 喜足ᄂᆞᄆᆞ<瑜伽19,12>
3-5) 法久住於世 / 法ᄒᆞ 久ᄀᆞ [於]世ᄅᆞᆫ 住ᄉᆞᆫᄀᆞ白ᄀᆞᄀᆞ丁ᄂᆞᄎᆞᄂᆞᄀᆞᄀᆞ ᄀᆞᄂᆞᄒᆞᄆᆞᄀᆞ<金光15,15>

이 예들은 '於'를 'ᄅᆞᆫ/ʌikʌi'로 釋讀하여 체언의 뒤에 懸吐하고 '於'자는 읽지 않은 것이다. 'ᄅᆞᆫ'는 有情物에 붙어 與格과 같이 쓰이는 예가 많지만 3-4)의 '(…臥具ᄋᆞ) 等ᄂᆞᄀᆞ ᄅᆞᆫ'나 3-5)의 '世ᄅᆞᆫ'의 경우와 같이 無情物에도 연결된다.

4-1) 於佛菩薩 常生淨信 / [於]佛ㄱ 菩薩戶十 常ㄱ 淨信し 生ンヒ立<華嚴6,8>

4-2) 汝於過去七佛 已問一義二義 / 汝ㄱ [於]過去セ 七佛十 已ミ一ㄱヒセ 義ミ 二ㄱヒセ 義ミノし 問白ミハニㄱㄱ四<舊仁14,20>

4-3) 於修現觀 爲極障导 / [於]現觀し 修ノ今十 極障导ㄱ戶 [爲]入しンチ一<瑜伽卄24,10>

이 예들은 '於'를 '十/kʌi'로 釋讀한 예이다. '十/kʌi'는 'ミ十/akʌi'의 古形인데 4-1), 4-2)의 예가 그것이고 'ノ今十/horikʌi'는 '十' 앞에 올 'ㅋ/ʌi'가 '今/ri'音에 縮約된 것이다.

5-1) 於寂靜正思惟時 能爲障导 / 此ㄱ 於寂靜ㅋ 正思惟ンケセ 時一十能カ 障导ㄱ戶 [爲]入しンア矣カ<瑜伽12,9>

이 예는 '於'를 '一十/iŏkʌi'로 釋讀한 例이다. 一十는 주로 音讀字 '時'에 連結되는 吐이다.

6-1) 有八萬戶蟲 依於我 住 / 八萬戶蟲ㄱ 有セミ [於]我し 依ンミホ住ンフ ㄱ四<華嚴疏9,13>

6-2) 衆生 善事於佛 / 衆生ㄱ 善ㅊ [於]佛し 事ハ白ミホ<華嚴2,20>

6-3) 衆生 失於見 / 衆生ㄱ [於]見し 失ㄱミフし<金光13,>

6-4) 不爲引他 令信[於]已 / 他し 引ンミ 已ㅋし 信ン [令]ㄱ [爲]人ンア 不多ンヲ<瑜伽4,18>

이 例들은 '於'를 對格助詞 'し/r'로 釋讀한 것이다. '於'를 處格으로 읽지 않고 對格으로 읽은 것은 '於'와 動詞와의 關係에서 決定되기도

하지만 釋讀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도 보인다. 華嚴經卷14의 경우는 다른 釋讀口訣에 비하여 對格으로 석독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2.5. 是 ㅣ/i

漢文의 指示詞 '是'에 대하여는 'ㅣ/i'로 懸吐하였다. 이는 '是'의 全訓讀을 나타낸 것이다.

1-1) 是事起故 是事起 / [是]ㅣ 事 起ㄴㄱ ㅅㅡ 故ᄉᆞ [是]ㅣ 事 起ㄴᄀ<華嚴疏1,6>

1-2) 是故 依行說次第 / [是]ㅣ 故ㅡ 依行ㄴ 次第ㄴ 說ㄹᄉᆞㄹᄒᆞ<華嚴10,8>

1-3) 知……是有記法 是無記法/ [是]ㅣㄱ 有記法ㅣᄀ [是]ㅣㄱ 無記法ㅣㄱㅅㄴ 知ᄀᆞᄒᆞㄴㅣ<華嚴疏1,8>

1-4) 是名內施 / [是]ㅣㄴ 名ᄒᆞ 內施ㅣㄴᄉᆞㅣ<華嚴疏11,5>

2-1) 如是 皆從手中出 / 是 如ᄉᆞㄴㄱㄴ 皆ㄴ 手ㄴ 中ㄴ 從ㄴ 出ㅣㅈᄉᆞ<華嚴15,19>

1-1)과 1-2)는 指示形容詞로 쓰인 것이고 1-3), 1-4)는 指示代名詞로 쓰인 것이다. 2-1)은 그 訓讀을 表示하지 않은 예인데 이 訓讀表示는 <華嚴疏>와 <華嚴>에서 充實하고 <舊仁>에도 자주 나타나는 편이지만 <金光>과 <瑜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6. 此 ㅣ/i

漢文의 또다른 指示詞 '此'도 'ㅣ/i'로 訓讀된다.

1-1) 此菩薩 / [此]ㅣ 菩薩ㄱ <華嚴疏1,4>
1-2) 入此大會 / [此]ㅣ 大會ㅣ+ 入ㅇㄴㄱ<舊仁3,8>
1-3) 菩薩住此 / 菩薩ㄱ [此]ㅣㄹ+ 住ㅇㅣㅇㄱ <華嚴17,20>
2-1) 以此 開導一切衆生 / 此ㄴ 以ㅣ 一切 衆生ㄴ 開導ㅇㅣㅎ<華嚴疏16,14>

1-1), 1-2)는 體言修飾語로, 1-3)은 指示代名詞로 석독한 예이다. 2-1)은 같은 <華嚴疏>에서도 訓讀表示가 없는 예이다. <華嚴疏>, <華嚴>, <舊仁>에서는 '此'에 대하여 거의 모두 'ㅣ/i'를 현토하였으나 <金光>과 <瑜伽>에서는 訓讀表示가 전혀 없다. 이 점은 '是'의 경우와 같다.

2.7. 斯 ㅣ/i

1-1) 唯佛與佛 乃知斯事 / 唯ㅅ 佛ㅅ 與ㄷ 佛ㅅㅣㄴㅣ [乃ㅣ] [斯]ㅣ 事ㄴ 知ㄴㅎㄷㅣ<舊仁11,24>

釋讀口訣에서 '斯'가 指示詞로 쓰인 예는 이 예가 唯一하다. 'ㅣ/i'로 訓讀되는 不讀字이다.

2.8. 爲 ㅇ/hʌ-, ㅣㅎ/sʌm-, ㅌ/sʌm-, ㅣㄹㅅㄹㅇ /iltʌrhʌ-, -ㅅ/kwa

釋讀口訣에서 '爲'는 頻度上 가장 많이 쓰이고 그 用法과 訓도 다양하다. 그 訓에 따라 不讀字로 쓰이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是爲菩薩摩訶薩 第十辯藏 / [是]ㄲㄴ [爲]ㅅㅁㄹ 菩薩摩訶薩ㄹ 十ㄹ 第ㄴ 辯藏ㅣㅅ ᄎㅏㅣ<華嚴疏26,3>

1-2) 婆羅門……首陀 神我等色心 名爲幻諦 / 婆羅門ㅣ……首陀ㅣㅅㅋ 神我 等ㅅㄱ 色心ㄴ 名ㅣ [爲] 幻諦ㅣㅅᄎㄲㅏ<舊仁14,2>

1-3) 於所餘事 非請他爲能成辦故 / [於]餘 所ㄴ 事ㅣㅓㄱ 他ㅋ [爲]ㄹ ㄹㅅㄴ 請ㅅㅣ 能ㅏ 成辦ㄹㅅ 非ㅊㄲㅣㄱㅅㅆ 故ㅏ<瑜伽22,2>

이는 漢文의 繫辭性의 動詞 '爲'에 그 全訓讀字 'ㅅ-'를 懸吐한 예들이다. '爲'는 口訣, 鄕札, 吏讀 등 借字表記 全般에서 'ㅅ/hʌ-'로 읽히어 이것이 '爲'의 代表的인 訓임을 말하여 주고 있다. 1-1), 1-2)의 '爲'는 '是爲-', '名爲-', '何等爲-'의 構文에 쓰여 繫辭性의 動詞(助動詞)로 쓰인 것이다. 1-3)의 '[爲]ㅅ-'는 '行爲'의 뜻으로 쓰인 代動詞이다. 1-1), 1-3)은 '爲'자에 'ㅅ-'를 直接 懸吐한 것이고 1-2)는 '爲'자가 아닌 句末의 單語에 懸吐한 것이다.

2-1) 爲諸衆 說眞實法 / 諸ㄱ 衆生ㅋ [爲]ㅁ 眞實法ㄴ 說ㅁㅊㅜㅊㅣㅅㄴㅏㄹㅅㄴ<華嚴疏9,2>

2-2) 爲之 示現種種業 / 之ㅋ [爲]ㅣㅗ 種種ㄴ 業ㄴ 示現ㅅㄹㅁ<華嚴19, 13>

2-3) 吾今先爲諸菩薩 說護佛果因緣 護十地行因緣 / 吾ㄱ 今ㅅㄱ 先ㅜ 諸ㄱ 菩薩[爲]ㅣㅗ 佛果ㄴ 護ㅅ令ㄴ 因緣ㅣ 十地ㄴ 行ㄴ 護ㅅ令ㄴ 因緣ㅣㅅㄴ 說白ㅁㅁㄴㅣ<舊仁3,18>

2-4) 欲……攝取衆生 爲說眞實 令成熟佛法 / 衆生ㄴ 攝取ㅅ [欲]ㅅ [爲]ㅁㅗ 眞實ㄴ 說ㅅㅜㅅ 佛法ㄴ 成熟 令ㄲㅏᄎㅏ<華嚴疏13,18>

2-5) 普爲衆生 作饒益 / 普ㄲ 衆生ㅋ [爲]ㅣ 饒益ㄴ 作ㅅㅏㅏ <華嚴17,23>

2-6) 爲諸菩薩 說佛往修淸淨行 / 諸ㄱ 菩薩ㄹ 爲ㅣ 佛ㅊ 往ㅜㅓ 修ㅋ

ᄀᆞᄐᆞᄒᆞᆫᄑᆞ 淸淨行ᄒᆞ 說ᄒᆞᄆᆞᄅᆞᄆᆞᄀᆞᄅᆞᄆᆞᄆᆞ<華嚴8,23>

2-7) 我等 爲作救護 利益 / [我]ᄐᆞ 等ᄂᆞᄀᆞᄀᆞ 爲ᄂᆞ 救護ᄂᆞᄒᆞ 利益ᄂᆞᄒᆞ ᄂᆞᄆᆞᄉᆞᄒᆞ 作ᄂᆞᄒᆞ<金光15,13>

이 文脈에서의 '爲'는 去聲으로 읽히는 介詞이다. 古代國語에서는 'NP+ᄒᆞ+[爲]ᄉᆞ'[5]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爲]ᄉᆞ/sam'을 '위하여', '도와서' 또는 '하므로, 때문에(原因)'의 뜻으로 쓰고 있다. 2-1), 2-2)의 예가 그 代表的인 예인데 ᄉᆞ과 ᄒᆞᄆᆞ은 'sam'의 異表記이다. 이들은 '爲'의 全訓讀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爲'는 不讀字이다. 2-3)의 '菩薩 [爲]ᄒᆞᄆᆞ'의 '菩薩' 다음에서는 處格 'ᄒᆞ/ʌi'가 나타나지 않는다. 2-4)의 '[爲]ᄉᆞᄆᆞ/samo'는, 漢文에서 '爲之'의 경우 '之'를 省略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釋讀에서도 '之'의 表現을 省略한 것이다. '之'를 살려서 표현하면 2-2)와 같게 된다. 이 省略은 國語로서는 非文法的인 것인데 漢文을 直譯하는 釋讀口訣에서는 흔하게 쓰이었다. 2-5), 2-6)은 'ᄒᆞ/sa-'로써 'ᄒᆞᄆᆞ/sam'을 表記한 省略表記이다. 釋讀口訣에선 이 省略表記 'ᄒᆞ'가 非省略表記보다 더 자주 쓰인다. 이러한 表記는 頭音添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全訓讀에서 省略된 表記로 보아 이러한 訓讀字도 不讀字로 본다. 2-7)은 드문 例이지만 '爲'의 訓 samo에서 'ᄂᆞ/o' 만을 懸吐한 것이니 이 '爲'는 不讀字라고 할 수 없다.

이 '[爲]ᄉᆞ/sam'의 訓이 바탕이 되어 'ᄉᆞ'과 'ᄒᆞᄆᆞ'이 '爲'와 類似한 뜻을 가진 '以', '由', '因' 등과 같은 漢字의 訓에도 사용되었다.

3-1) 百萬阿僧祇陀羅尼 以爲眷屬 / 百ᄀᆞ 萬ᄆᆞ 阿僧祇ᄏᆞ 陀羅尼ᄂᆞ 以ᄒᆞᄎᆞ 眷屬 [爲]ᄉᆞᄀᆞᄂᆞᄂᆞᆫᄀᆞ<華嚴疏25,14>

---

5) 이 구문에서의 'ᄒᆞ/ʌi'는 處格助詞이다.

3-2) 於所生起三摩地中 堪能爲障 / [於]生起ノ尸 所ㄴ 三摩地ㄴ 中ㅇ ㅓ 堪能ㅎ 障ㅣ [爲]一ㄱㅓㅎㄴㅣ<瑜伽14,19>

3-3) 以定解脫 而爲蔭映 / 定ㅅ 解脫ㅅㅅㅣ 以ㅇㅅ 而ㅱ 蔭映ノ尸 [爲]ニㅌㅗ<華嚴5,10>

3-4) 爲平等見 故…… / 平等見ㄱㄴㄱㅅㅣ [爲]ニㄱㅅㅱ 故ノ……<金光13,7>

3-5) 菩薩成佛時 以煩惱 爲菩提 / 菩薩ㄱ 成佛ㅅㅗㄱㅌㄴ 時ㅓ 煩惱ㅣ 以ㅇ 菩提 [爲]ㅔㅓㅎㄴㅣ<舊仁15,19>

3-6) 又爲尋思 所擾亂故 不樂遠離 內心寂靜奢摩他定 / 又 尋思ㅱ 擾亂ノ尸 所ㅣ 爲ハㄱㅅㅱ 故ノ 遠離ㄱㄱ 內心寂靜 奢摩他定ㅣ 樂尸 不冬ノ尸ㅅ<瑜伽10,9>

이 例들에서의 '[爲]ㅂ/sam-'은 'NP+ㅣ+[爲]ㅂ'의 構文에 쓰여 '만들다, 삼다'의 뜻을 나타낸다.[6] 3-2)의 '[爲]一', 3-3)과 3-4)의 '[爲]ニ'의 '一'와 'ニ'는 모두 'ㅂ'의 略體字이다. 3-5)의 '[爲]ㅔ-'는 'ㅱ/m'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3-6)의 '爲ハ-'는 <瑜伽>에만 나타나는 형태인데 아마도 '삼기/samki-'로 읽히지 않았을까 하여 여기에 넣어 두지만 不讀字로 보는 것은 아니다.

4-1) 王身 爲我臣僕 / 王ㅋ 身ㄱ 我ㅋ 臣僕ㄱ尸 [爲]ㅅㅣㅅㅗㅂㅎㅗㅅㅗㄱㅌㄴㅣㅓ<華嚴疏11,>

4-2) 而爲衆生第二導師 / 而ㅱ 衆生ㅋㅓ 第二 導師ㄱ尸 [爲]ㅅㅣㅅㅗㅅㅓㅎㅗㅓㄴㅣ<華嚴2,17>

4-3) 或爲良藥衆寶藏 / 或ㅅㄱ 良藥ㅅ 衆ㄱ 寶藏ㅅノオ尸 [爲]ㅅㅣㅅㅅ<華嚴19,10>

---

6) 이 構文에서의 'ㅣ/r'은 對格助詞이다.

4-4) 無明爲因 / 無明ㅣ 因 [爲]ㅣ尸ㅅㄴㅅ<金光7,23>

4-5) 行法相續 了了顯現 無明爲因 / 行法相續ㅋ+ 了了 顯現ㅅㅏㄱㅋ 無明ㅣ因ㅣ [爲]尸ㅅㄱ(ㄴ)ㅅ<金光7,24>

이 예들은 '爲'가 '-尸+[爲]ㅅㄴ+ㅅ-'의 形態로 읽히어 不讀字가 된 것이다.[7] 이는 繫辭性의 동사로서 '되다'의 뜻에 해당하는데 15世紀의 國語에서 흔히 쓰이는 'ᄃᆡ/tʌβʌi-'가 발달하기 이전의 古代語形을 보여 주는 것이다. 4-4)는 '因ㅣ尸 [爲]ㅅㄴㅅ-'로 되어야 할 것이 'ㅣ尸'이 '爲'자의 뒤로 간 것이고 4-5)는 'ㅣ尸'의 '尸'만이 뒤로 간 것이다. 이것은 ㅣ尸ㅅㄴㅅ-가 하나의 單語나 '爲'의 訓으로 認識된 데서 나온 것으로 文法的으로나 意味上으로는 '(ㅣ)尸+[爲]ㅅㄴㅅ-'의 表記가 맞는 것이다. 그러나 <金光>에서는 '[爲]ㅣ尸ㅅㄴㅅ-'의 懸吐만이 一貫되게 나타난다.

5-1) 爲饒益衆生 隨其所有 一切皆捨 / 衆生ㄴ 饒益ㅅ [爲]ㅅ 其 有ㄴㄱ 所ㄴ 隨ㅎ 一切之ㄴ 皆ㄴ 捨ノ尸ㅁ<華嚴疏10,11>

5-2) 得神通 爲成熟衆生善根故 / 神通ㄴ 得ㅋ 衆生ㅋ 善根ㄴ 成熟ㅎㅣ [爲]ㅅㅅ尸ㅅㅠ 故ノㅅ<金光3,19>

5-3) 爲欲利益衆生故 / 衆生ㄴ 利益ㅅ [爲欲]ㅅㅅ尸ㅅㅠ 故ㅋ<華嚴18,19>

5-4) 佛佛出現於世 爲衆生故 說作三界六道名字 / 佛佛ㅣ [於]世+ 出現ㅅㄷㅜ 衆生ㄴ 爲ㅅㅅㄷ尸のㅠ 故ノ 說ㅋㅎ 三界ㅋ 六道ㅋノ ㅎㄴ 名字ㄴ 作ㅅ白ㄹㄱㄴ<舊仁14,5>

이 '爲'는 '欲'과 같이 '하고자 하다'의 뜻으로 意志를 나타내는 조동

7) '-尸+ㅅㄴ+ㅅ-'의 '尸/l'은 動名詞語尾, 'ㅅ/tʌ'는 依存名詞, 'ㄴ/r'은 對格助詞, 'ㅅ/hʌ-'는 助動詞이다.

사이다. 15세기에는 이에 해당하는 語尾가 '-고져/kočiŏ'인데 釋讀口訣에선 '-ㅅ/koa'가 쓰였다.

5-1)과 5-2)는 '爲'에 'ㅅ'가 懸吐되어 '爲'가 不讀字가 된 예이다. 이러한 懸吐는 각 釋讀口訣에 고루 나타난다. 5-3)은 原文에서 '爲'와 '欲'이 結合되어 이루어진 熟語에 'ㅅ'를 懸吐하고 이 숙어를 不讀字로 만든 것이다. 이 예도 각 文獻에 고루 나타난다. 5-4)는 原文의 '爲……故'의 構文에서 '爲'字에 'ㅅ ㅇ/koa hʌ-'를 현토한 것이다. 아마도 이 '爲'는 'NPㅋ [爲]ㅁ-'으로 읽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데 'ㅅ ㅇ-'를 현토한 것은 理解하기 어렵다. 唯一한 例이어서 그 기능에 대한 판단은 保留하여 둔다.

2.9. 因 ㅁ/sam-

1-1) 但欲因彼境界 攝取衆生 爲說眞實 令成熟佛法 / 但ㅅ 彼 境界ㅣ [因]ㅁㅡㅅ 衆生ㅣ 攝取ㅇ [欲]ㅅ [爲]ㅁㅜ 眞實ㅣ 說ㅇㅡㅅ 佛法ㅣ 成熟 令ㅣㅏㅊㅎ<華嚴疏13,18>

2-1) 因此 證得廣大歡喜 / 此ㅣ 因ㅜ 廣大ㅇㅓ 歡喜ㅣ 證得ㅇㅎ<瑜伽6,1>

1-1)은 '因'을 'ㅁ/sam-'으로 全訓讀表記를 하여 不讀字가 된 예이다. 2-1)은 '因'에 그 訓의 末音 'ㅜ/o'만을 표기하였으니 不讀字가 아니다. 接續詞 '因'의 用例는 극히 드물다. 그 訓 'ㅁ/sam-'도 이것이 唯一한 것이다. 'ㅁ/sam-'은 본래 '爲'의 訓이었는데 이것이 原因의 뜻으로 쓰이면서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다른 漢字의 訓에도 擴散된 것임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2.10. 以 ㅿ/sam-, ᄉᆞ/sam-

'以'는 漢文에서 介詞로 쓰이는데 口訣字 'ᄆᆞ/lo'의 原字이다. 이는 '以'의 訓이 古代에는 'lo'이었음을 말하여 준다. 吏讀와 15世紀의 諺解에서는 이를 訓讀하여 'ᄡᅳ아/psŭa'로 읽었다. 그러나 釋讀口訣에서는 이를 'sam'으로 읽어 다른 讀法을 보여 준다.

1-1) 我無始已來 以飢餓 故喪身數無 / 我ㄱ 無始ᄆᆞᄒᆞ 已來ᄒᆞᆫᄀᆞᆷ 飢餓ᄒᆞ [以]ㅿᄀᆞᄉᆞᄆᆞ 故ᄒᆞᆫ 身ᄒᆞ 喪ᄒᆞᄉᆞᄒᆞᆫᄀᆞᆷ 數ᄅᆞ 無ᄒᆞᆯᄫᅵᄉᆞᄒᆞᆫᄀᆞᄉᆞ<華嚴疏10,9>

1-2) 以衆生空 故得置菩提空 / 衆生 空ᄋᆞᆫᄀᆞ이ᄒᆞ [以]ᄉᆞ이ᄆᆞ 故ㅣ 得ᄒᆞᆷ 菩提空ᄒᆞ 置ᄋᆞᆫ가<舊仁15,12>

1-3) 以智慧火 增長光明故 / 智慧ᄒᆞ 火ᄒᆞ [以]ᄉᆞ 光明ᄒᆞ 增長ᄋᆞᆫᄃᆞᆫᄀᆞᄉᆞᄆᆞ 故가<金光7,4>

2-1) 種種無量 皆殊好 以此莊嚴諸佛土 / 種種ᄒᆞᆯᄫᅵ 量ᄫᅵ 無ᄉᆞᄒᆞᆷ 皆ᄒᆞ 殊好ᄋᆞᆫᄀᆞᄒᆞ 此ᄒᆞ 以ᄉᆞᄒᆞᆷ 諸ᄀᆞ 佛土ᄒᆞ 莊嚴ᄋᆞᆫᄂᆞ가<華嚴16,23>

1-1)은 '以'에 全訓讀吐 'ㅿ/sam'을 懸吐하여 '以'를 不讀字로 釋讀한 것이다. 1-2)는 '以'를 'ᄉᆞᄒᆞᆷᄀᆞ이ᄆᆞ/samʌntʌlo'로 읽을 것을 'ᄒᆞᆫᄀᆞ/mʌn'을 省略하고 懸吐한 것이다. 1-3)의 '[以]ᄉᆞ'는 'sam'을 나타낸다. 이들은 '以'를 不讀字로 석독한 예이다. 이에 대하여 2-1)의 '以ᄉᆞᄒᆞᆷ'은 '以'의 訓을 표시하지 않은 讀字이다.

이들 釋讀口訣에서는 'ㅿ/sam'이 <華嚴疏>에 唯一하게 使用되었을 뿐, '以'의 訓을 'ᄉᆞ/sa-'로만 懸吐하고 'ᄉᆞᄒᆞᆷ/sam'으로 懸吐한 例가 없다. '以ᄉᆞ'와 같은 讀字도 각 文獻에 자주 쓰였다.

2.11. 由 ㆞/sam-, ᄉᆞᆷ/sam-

漢文에서 介詞로 쓰이는 '由'의 訓도 '㆞/sam'이다.

1-1) 菩薩……不由他悟 / 菩薩ㄱ ……他ㄴ [由]㆞ᄀᆞ 悟ᄆᆞ 不ᄂᆞᆫᄒᆞ<華嚴疏19,11>

1-2) 菩薩聞之 卽便施與 假使由此 經阿僧祇劫 / 菩薩ㄱ [之]ㅣㄴ 聞ㅁᆞ 卽ᄉᆞᆫ 便ㅣ 施與ᄂᆞᆫᄃᆞᆷ 假使ᄆᆞᄋᆞ [此]ㅣㄴ [由]㆞ᄀᆞᄋᆞ 阿僧祇ㄹ 劫ㄴ 經ᄀᆞ……<華嚴疏16,2>

1-3) 由此所依所建立處爲依止故…… / 此 所依ㅣㄱ 所建立處ㄴ 依止[爲]ᄉᆞᆯᄒᆞᄋᆞㄴ [由]ᄉᆞᆯᄒᆞᄋᆞᆫ 故ㄴ……<瑜伽3,20>

2-1) 此二十種所對治法 略由四相 於所生起三摩地中 堪能爲障 / 此 二十種ㄹ 所對治法ㄱ 略ㅁᆞㄱ 四相ㄴ 由ᄀᆞ [於]生起ㄴᆞᆫ 所ㄹ 三摩地ㄹ 中ᄀᆞㅓ 堪能ᄒᆞᆫ 障ㄴ 爲ᄒᆡᄂᆞᄒᆞᄒᆞㄹᄋᆡ<瑜伽14,18>

1-1)과 1-2)는 '由'에 '㆞/sam-'을 懸吐하여 不讀字로 석독한 것이다. 1-3)은 'ᄉᆞᆯ-'만을 懸吐하였지만 이는 'ᄉᆞᆯᄒᆞ/sam-'의 省略이다. 2-1)의 '由ᄀᆞ'는 그 訓을 나타내지 않은 讀字이다. 이 시대의 釋讀口訣에서는 위의 1-1), 1-2)의 예만이 全訓讀 '㆞-'을 보여 주고 모든 文獻이 'NPㄴ/ŭr + [由]ᄉᆞᆯᄒᆞᄋᆞㄴ/samŭntʌlo + 故…'의 構文에서만 'ᄉᆞᆯ/sam-'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주 쓰이는 2-1)의 '由ᄀᆞ'와 같은 경우의 訓도 'sam-'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ᄇᆞᆶ/pŭth-'으로 읽힐 可能性도 있다. 또 '由ᄉᆞᆯ-'를 15세기의 '말미삼다'에 근거하여 '말미 삼/malmʌi sam-'으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앞의 '爲ᄉᆞᆯ-, 因㆞-, 以ᄉᆞᆯ-' 등의 예와 함께 類推해 보면 受容하기 어렵다.

2.12. 用 ᄉᆞᆷ/sam

漢文에서 用은 他動詞로 쓰이지만 '以'와 같은 機能의 介詞로도 쓰인다. 이 경우에 'ᄉᆞᆷ/sam'으로 현토한 例가 있다.

1-1) 又毘鉢舍那支 最初必用善友 爲依 / 又 毘鉢舍那支ㄱ 最初ᄒᆞᆫ 必ㅅ 善友ᄅᆞ [用]ᄉᆞᆷ 依 [爲]ᄒᆞᄒᆞᆷ<瑜伽6,18>

2-1) 於無上法 多用功力 無明爲因 / [於]無上法ᄋᆞᆯ 多ㅣ 功力ᄅᆞ 用ᄂᆞᆫ ᄐᆞᄀᆞᆨ 無明ㅣ 因 [爲]ㅣ尸入ᄅᆞᄂᆞᆫᄀᆞ<金光8,2>

1-1)의 '用ᄉᆞᆷ'는 '以'와 같이 'ᄉᆞᆷ'를 懸吐하여 그 훈 'sam-'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不讀字이다. 2-1)의 '用'은 他動詞로 쓰인 것이다.

2.13. 與 ᄉᆞᆷ/sam

1-1) 云何 得與一切衆生 爲依 / [云]何 得ᄋᆞᆯᄊᆞ 一切 衆生ᄒᆞ 與ᄉᆞᆷ 依ㅣ尸 [爲]入ᄅᆞᄂᆞᆫᄀᆞ<華嚴2,6>

2-1) 與彼同事 悉能忍 / 彼ᄅᆞ 與ᄃᆡ 同事ᄂᆞᆫᄋᆞᆯᄊᆞ 悉 能ᄒᆞᆫ 忍ᄂᆞᆫᄋᆞᆯ<華嚴18,13>

1-1)의 '與'는 앞의 '爲'자의 경우와 같이 'NP+ᄒᆞ+[與]ᄉᆞᆷ'의 構文에 쓰인 것이다. 이로써 '[與]ᄉᆞᆷ'는 sam으로 읽히고 '위하여'의 뜻으로 해석됨을 추정할 수 있다. 漢文의 介詞 '與'는 2-1)에서와 같이 '與ᄃᆡ'으로 표기되어 15世紀의 '다ᄆᆞᆺ/tamʌs'에 對應되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與]ᄉᆞᆷ/sam'은 唯一한 例로 특수한 文脈에서 특수하게 釋讀한 것이다.

2.14. 欲 ㅅ/koa

漢文에서 '意欲'을 나타내는 助動詞로 쓰이는 '欲'은 高麗時代의 釋讀口訣에서는 '-ㅅ/koa-'로 訓讀된다. 이는 앞의 '爲'에서도 보아온 바다.

1-1) 欲令衆生 知其實性 廣爲說宣 / 衆生ㄴ 其 實性ㄴ 知ㅣ 令ㅣ [欲]ㅅ 廣ㅣ [爲]ㅁ 說宣ㅅ나ㅎㅓㅣ<華嚴疏18,17>

1-2) 欲顯示菩提心功德故 / 菩提心ㅓ 功德ㄴ 顯示ㅅ [欲]ㅅ ㅅㄱㅁ入ㅱ 故ㅈ<華嚴8,21>

2-1) 大師爲欲建立正法 方便示現 成正等覺 / 大師ㅣ 正法ㄴ 建立ㅅ [爲欲]ㅅ 方便ㅱ 正等覺 成ㅅ尸入ㄴ 示現ㅅㄱㅏ<瑜伽6,4>

1-1)과 1-2)는 '動詞語幹 + ㅅ'로서 '欲'을 全訓讀한 不讀字의 예이고 2-1)은 '爲'와 결합된 '爲欲'을 ㅅ로 竝訓讀한 것이다. 이 '欲'의 全訓讀 表記는 각 釋讀口訣에 나타난다.

2.15. 令 ㅅㅣ/hʌi-

使役形의 機能을 하는 '令'은 口訣字 ㅅ의 原字로 'ᄒᆞ이/hʌi-'로 訓讀되어 온 것이다. 釋讀口訣에선 'ᄒᆞ이/hʌi-'와 '-ㅣ/i-'로 訓讀되는데, 이는 懸吐하는 이의 慣習에 따라 갈린 것이다.

1-1) 說妙法 悉令得解眞實諦 / 妙法ㄴ 說ᄒᆞᆷ 悉ᄒᆞᆷ 得ᄒᆞᄉᆞ 眞實諦ㄴ 解ㅅ [令]ㅣㅎㄱㅗㅁ<華嚴20,7>

2-1) 諸煩惱行 不能令動故 / 諸 煩惱行ㅋ 動 令ㅣ尸 能ᄉᆞ 不ㅅㅇㅓㅏㄱ入ㅱ 故ㅅ<金光7,11>

2-2) 智慧如大雲 能令徧滿覆一切故 / 智慧ㄱ 大雲 如ㅈㅎㅅㅅㄴᄒᆞᆷ 能ㅋ

徧滿ㅅ ᄀᆞᄅᆞ 一切ㄴ 覆ㅅ 令ᄃᆞᆫᄀᆞ ᄉᆞᆷ 故ㅣ<金光7,15>

1-1)에서 '令'자의 앞글자에는 'ㅅ/hʌ'를 '令'자의 뒤에는 'ㅐ/i'를 懸吐함으로써 '令'자를 不讀字로 석독한 것이다. 2-1)은 'ㅐ/i'만을 '令'자의 末音添記로 懸吐한 것이고 2-2)는 '令'의 앞글자에 ㅅ만을 懸吐하여 '令'을 'ㅐ/i'로 읽은 것이다. 2-1), 2-2)의 '令'자는 讀字이다.

'令'자에 대한 懸吐는 <瑜伽>에서는 1-1)의 'ㅅ[令]ㅐ-'만을 보여주고 <金光>에서는 1-1)의 'ㅅ[令]ㅐ-'와 2-1)의 '令ㅐ-'가 섞여 나타난다. <華嚴疏>는 2-1)의 懸吐만이, <華嚴>에서도 거의 2-1)로 懸吐한다. <舊仁>에는 用例가 없다. 2-2)의 懸吐는 극히 드물다. 이와 같이 '令'자의 訓은 'hʌi'인데 文獻에 따라 'ㅅ'와 'ㅐ'의 添加 與否로 不讀字가 되기도 하고 讀字가 되기도 한다.

2.16. 有 ᄃᆞ/tu-

'有'의 訓에는 'ᄃᆞ(두)/tu-'와 '잇/is-'이 있다. 'ᄃᆞ(두)/tu-'의 경우에는 全訓讀 懸吐로 不讀字가 되고 '잇/is-'의 경우에는 末音 'ㅅ/s'만을 添記하여 讀字가 된다.

1-1) 此菩薩 聞過去諸佛 菩薩所有功德 / [此]ㅐ 菩薩ㄱ 過去ㅅ 諸ㄱ 佛ᄆᆞㅐ 菩薩ᄇᆞ [有]ᄃᆞᄒᆞᄆᆞᄀᆞ 所ㅅ 功德ㅣ 聞ᄂᆞᆫ<華嚴疏13,2>

2-1) 此慧無盡藏 有十種不可盡 故說爲無盡 / [此]ㅐ 慧 無盡藏ᄋᆞ 十十ᄇᆞ 種ㅅ 不可盡 有ㅅᄀᆞᆫᄉᆞᆷ 故ᄉᆞ 說ᄇᆞ 無盡ᄋᆞ [爲]ㅣᄒᆞᄂᆞㅣ<華嚴疏19,12>

3-1) 因緣本自有 無自無他作 / 因緣ᄆᆞ 本ᄆᆞㅅ 自ᄒᆞᄆᆞ 有ㅅᄀᆞᄇᆞᄆᆞ 自無ㅅᄒᆞ 他作無ㅅᄒᆞㅅᄒᆞᆫ<舊仁14,24>

1-1)의 '[有]ㅛ-'는 'ㅛ/tu-'를 懸吐하여 不讀字로 석독한 것이다. 2-1)의 '有ㅅ-'은 'is-'의 末音 '-ㅅ/s'만을 懸吐한 것으로 각 文獻에 고루 나타난다. 3-1)의 '有ㆍ-'는 '有'가 音讀된 것으로 극히 드문 例이다. '[有]ㅛ-'의 全訓讀 懸吐는 각 口訣에 자주 나타나지만 <舊仁>에는 資料의 量이 限定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10세기 중엽의 자료인 均如의 「釋華嚴敎分記」의 석독구결에서도 '[有]ㅛ-'가 이미 쓰였다.

2.17. 無[有]

'無'와 '無有'를 訓讀하면 둘 다 '없-'이 된다. 그러나 '無有'의 경우 'ㅅ/s-'을 '有'에 懸吐하면 그것을 '잇/is'으로 읽을 것인지, '없/ŏps-'으로 읽을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混亂을 피하기 위한 듯 '無有'의 경우 吐를 일부러 앞글자 '無'에 붙이는 예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有'는 읽을 기회가 없는 不讀字가 된다.

1-1) 一切衆生 於生死中 無有多聞 / 一切 衆生ㄱ [於]生死ㅅ 中ㅇㅓㅅㅇㅡ 多聞ㅅㄱ 無ㅁㅏㄱ[有]<華嚴疏8,20>

1-2) 持…修多羅 文句義理 無有忘失 / 修多羅ㄴ 持ㅅㄷㅡㅁ 文句ㅇ 義理ㅇㅅㅎㅓㅓ 忘失ㄷ 無ㅣㅅㅏㅎㅇ[有]<華嚴疏23,20>

1-3) 諸佛如來 說甚深法 心常樂聞 無有猒足 / 諸佛如來ㄷ 說ㅂㅅㄱ 甚深法ㄴ 心ㅇㅓ 常ㅣ 樂ㅅ 聞ㅂㅅㄷㅡㅁ 猒足ㅅㄷ 無[有]ㅅㅎ<金光4,1>

1-4) 無有損傷 無有痛惱 / 損傷ㅅㄷ 無有ㅅㅎ 痛(惱) 無有ㅅㅅㅎㅅㅏㅅㄱ 入ㄴ<金光6,14>

1-1)과 1-2)가 '無'에 懸吐함으로써 '有'를 不讀字로 만든 것이고 1-3)은 '無有'의 '有'에 懸吐한 것이다. 1-3)의 경우도 文脈上 '없-'으

로 읽고 '有'가 不讀字임을 판별할 수는 있지만 混亂의 餘地는 있다고 하겠다. 1-4)는 '無有'를 音讀한 것이다. '無有'에서 '無'에 懸吐한 예는 주로 <華嚴疏>에 나타난다.

2.18. 如 ᄎᆞᆫ/tihʌ-, ᄎᆞ/ti, ᄒᆞᆫ/tahʌ-, ᄃᆞᆼ,印/kʌs-

漢文의 形容詞(比較)인 '如'는 釋讀口訣에서 여러 訓으로 읽히는데 懸吐 여하에 따라 不讀字가 되기도 하고 讀字가 되기도 한다.

1-1) 此菩薩 如上所說 處輪王位 / [此]ㅣ 菩薩ㄱ 上ᄭᅴ 說ᄆᆞᆯㄱ 所ᄒᆞ [如]ᄎᆞᆫᄒᆞ 輪王ㄹ 位ᄒᆞ十 處ᄒᆞᆫᄃᆞᆺ<華嚴疏11,17>

1-2) 如是 開闡三乘教 / [是]ㅣ [如]ᄎᆞ 三乘ㄹ 敎ᄒᆞ 開闡ᄒᆞᆫᄒᆞᄉᆞ<華嚴14,22>

1-3) 香如車輪 花如須彌山王 / 香ㄱ 車輪 [如]ᄒᆞᆫᄃᆞᆼ 花ㄱ 須彌山王 [如]ᄒᆞᆫᄂᆞᆫㄱᆞᆫ<舊仁2,15>

2-1) 如諸法相 悉能通達 / 諸ㄱ 法相ᄒᆞ [如]ᄃᆞᆼ 悉ᄒᆞ 能ᄎᆞ 通達ᄒᆞᆫᄃᆞᆺ<華嚴2,14>

2-2) 彼亦如其差別法 隨世所宜 而化度 / 彼ㄱᆞ 亦ᄒᆞᆫㄱ 其 差別法ᄒᆞ [如]印 世ㄹ 宜ㄱ 所ᄒᆞ 隨ᄆᆞᆯ 而ᄲᅳ 化度ᄒᆞᆫᄂᆞᆫᄃᆞᆺ<華嚴18,9>

3-1) 如是所有 皆能說 / 是 如ᄒᆞᆫㄱ 有ㄱ 所ᄒᆞ 皆ㄹ 能ᄎᆞ 說ᄂᆞᆫᄃᆞᆺ<華嚴19,15>

4-1) 隨其所須 如意供給 / 其 須ㄹᄋᆡᄂᆞᆼᄭᅴ 所ᄒᆞ 隨ᄂᆞ 意ᄒᆞ 如ᄉᆞ 供給ᄒᆞᆫᄒᆞᄉᆞ<金光15,14>

1-1)의 '[如]ᄎᆞᆫᄒᆞ/tihʌa'는 形容詞로, 1-2)의 '[如]ᄎᆞ/ti'는 副詞로 읽은 것이다. '如'는 <華嚴疏>, <華嚴>, <金光>, <瑜伽>에서 一貫되게 'ᄎᆞᆫ/tihʌ-'로 懸吐하고 있는데 <舊仁>에서는 一貫되게 '[如]

ㅣㅅ/tahʌ-'로 懸吐하고 있다. 이는 語形의 時代的인 變化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2-1)의 '[如]ᄒᆞ/kʌs'와 2-2)의 '[如]印/kŭs→kʌs'는 口訣字만 다를 뿐 같은 訓으로 읽은 것이다. 이 'ᄀᆞᆺ/kʌs'은 15世紀의 'ᄀᆞᆮ/kʌt-'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 口訣에선 對格을 지배하는 他動詞로 쓰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에서 2-2)까지의 例는 '如'를 모두 不讀字로 釋讀한 것이다. 3-1)의 '如ㅅㄱ'과 4-1)의 '如ㅅ'도 '如'를 訓讀한 것으로 보이지만 全訓을 보여 주지는 않는 讀字이다.

2.19. 若 ㅣㅅ/tahʌ-

1-1) 菩薩化衆生 爲若此 / 菩薩ㅣ 衆生ᄋᆞᆯ 化ᄒᆞ尸 [爲]此 [若]ㅣㅅᄂᆞㅣ ㅅᄀᆞ下<舊仁14,14>

1-2) 譬若牛二角 / 譬ᄉᆞᆨ 牛ㅋ 二角 [若]ㅣㅅᄀᆞ<舊仁15:03>

2-1) 除此 更无若過若增 / 此ᄋᆞᆯ 除ㅁ斤 更ᄒᆞ 若過ㅅᄒᆞ 若增ㅅᄒᆞㅅᄀᆞ 无ᄂᆞᆨᄀᆞㅣ<瑜伽6,13>

이 文脈의 '若'은 위의 '如'와 字形만 다를 뿐 같은 뜻, 같은 機能으로 쓰인 것이다. 1-1)과 1-2)의 '[若]ㅣㅅ-'의 예들은 <舊仁>에 쓰인 것으로 全訓讀을 표기하여 '若'을 不讀字로 釋讀한 것이다.

2-1)의 '若'은 '或'과 같은 列擧의 機能을 하는 것인데 이 기능을 'ㅅᄒᆞ……ㅅᄒᆞ'가 하고 있으므로 읽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文體上 '若'에 强調의 기능이 있어 반드시 不讀字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2.20. 等 ㅣㅅ/tahʌ-

漢文文法에서 語助詞 또는 助詞라고도 불리는 '等'은 '複數'나 '部

類', 또는 '同等'의 뜻을 나타낸다. 이 '同等'의 뜻을 바탕으로 '如'와 같은 'ㅣㄴ/tahʌ-'의 訓을 갖게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釋讀口訣에서는 '等'의 訓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1-1) 衆生苦樂利衰等 一切世間所作法 / 衆生ㅋ 苦ㅣ 樂ㅣ 利ㅣ 衰ㅣㄴ ᄆ [等]ㅣㄴㄱ 一切 世間ㄷ 作ㄴㅏㅎㄱ 所ㄷ 法ㅣ十<華嚴18,10>

1-2) 佛子 何等爲菩薩摩訶薩聞藏/ 佛子ㅣ 何ㅎ [等]ㅣㄴㄱㄴ 菩薩摩訶薩ᄆ 聞藏ㅡㄴㅇㅁㅁ [爲]ㄴㅏㅊᄆㅅㄱ<華嚴疏1,3>

2-1) 有我無我等 如是衆多義 / 有我ㅡ 無我ㅡ 等ㄴㄱ 是 [如]ㅈ 衆多ㄴㄱ 義ㅣ十<金光13,13>

3-1) 入一切智 知三世等 / 一切智ㅣ十 入ㄴㅣㅈ 三世ᄆ 等ㅣㄴㄱㅅㄴ 知ㅌㅗ<華嚴7,23>

1-1)의 '[等]ㅣㄴㄱ/tahʌn'은 複數의 '部類'를 뜻하는 것이고 1-2)의 '[等]ㅣㄴㄱㄴ/tahʌnŭr'의 '等'은 '何'와 같은 疑問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8] 우리의 釋讀口訣에서는 同等, 또는 '等類'의 뜻으로 보아 'ㅣㄴ/tahʌ-'으로 懸吐한 것이다. 이 例들은 '等'의 全訓을 懸吐한 것이어서 不讀字로 釋讀한 것이다. <華嚴疏>와 <華嚴>에서는 '等'을 한결 같이 'ㅣㄴ/tahʌ-'로 懸吐하여 不讀字로 만들었으나 <金光>, <舊仁>, <瑜伽>에서는 한결같이 2-1)의 '等ㄴㄱ'과 같이 懸吐하여 讀字로 읽었다. 3-1)은 '等'을 動詞로 읽은 것으로 뜻이 다른 訓讀字이다.

2.21. 應, 應可 ㅎㄷ/-ms-

8) 諸橋轍次의 『大漢和辭典』의 '等'자의 說明 參照.

漢文에서 '必然'의 뜻으로 쓰이는 助動詞 '應'은 釋讀口訣에서 한결같이 '-ㅎㄴ(ㅁㅅ)/ms-'로 읽고 있다. 이 때 'ㅎ'과 'ㄴ'은 언제나 '應'자의 앞뒤에 나뉘어 쓰인다. 이 '-ㅎㄴ-'는 古代國語의 應當法, 또는 必然法 語尾라고 할 것이다.

1-1) 應隨彼所求 充滿其意 / 彼ㅋ 求ノㄱ 所し 隨ㅎ 其 意し 充滿ㅅ リㅎ[應]ㄴソㄱ リㄱ 丁ソナカ<華嚴疏11,13>

1-2) 智不應二 / 智ㄱ 二リ[應]ㄴソㄱ 不矢リロしか<舊仁14,19>

1-3) 於四處所 以二十二相 應善觀察 / [於]四處所ミ十 二十二相し [以]ミ 善カ 觀察ノ[應]ㄴ ㅣ<瑜伽16,15>

2-1) 十方所有 諸妙物 應可奉獻無上尊 / 十方ミ十 有ㄱ 所ㄴ 諸ㄱ 妙物リ 無上尊ヲ十 奉獻ソ白ㅎ[應可]ㄴソㄱし<華嚴15,22>

3-1) 證得如來諸弟子衆所有聖法 / 如來尸 諸 弟子衆ヲ [有]ㅛ白ノㄱ 所ㄴ 聖法し 證得ソナㅎㄴ ㅣ<瑜伽3,21>

1-1), 1-2), 1-3)의 例들은 '-ㅎㄴ-'가 '應'의 全訓을 懸吐함으로써 '應'을 不讀字로 釋讀한 것이다. 2-1)의 '-ㅎ[應可]ㄴ-'가 '應'에 그와 類意인 '可'자가 結合된 것으로 '應可'가 '-ㅎㄴ-'로 全訓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3-1)은 '-ㅎㄴ-'가 '應'이 없는 문맥에서도 같은 뜻을 나타내어 고대국어에서 '-ㅎㄴ-'가 하나의 形態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22. 雖 ㅅㅛ/koatu

漢文에서 '讓步'의 機能을 나타내는 接續詞 '雖'는 '비록……하나', '비록……하여도'로 解釋되는 것이다. 그러나 釋讀口訣에선 'ㅅㅛ(과두)/koatu'로 對應된다. 이 'ㅅ'와 'ㅛ'는 '雖'의 앞과 뒤에 나뉘어 현토

되어 그 全訓讀을 보여 준다.

1-1) 伴雖有德 然能宣說修定方便 師有過失 / 伴ㄱ 有德ン人[雖]斗 然ンカ 能ク 修定方便し 宣說ンヤセ 師ㄐ 過失 [有]斗ノアム<瑜伽13,8>.

1-2) 佛世尊雖般涅槃 而俗正法 猶住未滅 勝義正法 未隱未斷/ 佛世尊ㄱ 般涅槃ンニヤセ人[雖]斗 而ㄱ 俗正法ㄐ 猶ㄐ 住ンミホ 未滅ンテ 勝義正法ㄐ 未隱未斷ンテンアヌ丨<瑜伽3,11>

1-1)과 1-2)의 例가 '雖'의 全訓을 잘 보여 주고 있다. <瑜伽>에 20餘回나 한결같이 이 釋讀이 나타나는데 다른 釋讀口訣 資料에는 쓰인 예가 없다. 原文에서 이 接續詞가 쓰일 機會가 없었던 데 말미암는 것으로 생각된다.

2.23. 乃 ミ/sa

漢文의 順接接續詞인 '乃'는 釋讀口訣에선 '-ミ/sa'로 訓讀된다. 後代의 順讀口訣에서는 '乃'자의 앞 句의 토의 끝에 'ミ/sa'를 懸吐하여 그 機能을 表示하였었다. 石峰千字文에서는 그 訓을 '사/sa'로 적고 있다.

1-1) 唯佛與佛 乃知斯事 / 唯ハ 佛人 與セ 佛人ㄐニミ[乃ミ] [斯]ㄐ 事し 知ニヤセ丨<舊仁11,24>

1-2) 如是 乃應受他信施 / 是 [如]ネンミハミ[乃ミ] 他ラ 信施し 受ノヤ[應]センカ<瑜伽17,20>

2-1) 隨其所有 一切皆捨 乃至盡命 / 其 有セㄱ 所し 隨ヤ 一切ネセ 皆セ 捨ノアム 乃ンミ 盡命ンアヌ十 至リンノ<華嚴疏10,12>

2-2) 天龍及以阿修羅 乃至摩睺羅伽等 / 天ᄉ 龍ᄉ 及ᄒᆞ 以ᄀᆞ 阿修羅ᄉ 乃ᄀᆞ 至ㅣ 摩睺羅伽 [等]ㅣᄂᆞᆫㄱㅣㅣᄉᆞㅣᄏᆞᄒᆞㄱㅅᆞᆫ<華嚴14,24>

1-1)과 1-2)는 '乃'의 앞 글자의 吐 '佛ㅅㅣㄴᄀᆞ'에 'ᄀᆞ'가 懸吐되었으므로 '乃'는 不讀字가 되어야 하는데 굳이 토를 붙이어 같은 機能의 ᄀᆞ가 重複된 것이다. 이 重複을 避하기 위하여 吐를 '乃'자의 側面에 다 붙이지 않고 글자 속에 넣었다. 이와 같이 訓을 不讀字의 글자 안에 써 넣은 예는 1-1)의 <華嚴疏9,5>와 <소26,8>에 쓰인 '之'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漢字 '乃'나 '之'가 不讀字임을 표시한 것에 不過하다. 2-1)은 '乃至'에서 '乃'자에 'ᄂᆞᆫᄀᆞ/hʌsa'를 현토하고 音讀한 例이다. 2-2)는 같은 音讀인데 ᄂᆞᆫ자의 표기를 省略한 것이다. 이 '乃至'에 대한 懸吐는 <華嚴疏>와 <華嚴>에선 주로 '乃ᄂᆞᆫᄀᆞ 至-'로 나타나고 <金光>, <舊仁>, <瑜伽>에서는 ᄂᆞᆫ를 생략한 '乃ᄀᆞ 至-'가 일관되게 나타난다.

2.24. 又 ㄱ/sto(接續詞)

漢文의 接續詞 '又'는 接續詞 'ㄱ/sto'나 '又ᄂᆞᆫㄱ/stohʌn'으로 읽힌다.[9]

1-1) 供養一切世照燈 又放光明妙莊嚴 / 一切 世ᄉᆞ 照ㅣㄹᄒᆞᄉᆞᆫᄃᆞ 燈ᄉᆞ 供養ᄂᆞᆫᄅᆞᄒᆞᄆᆞ [又]ㄱ 光明ᄉᆞ 放ᄂᆞᆫᄀᆞᄒᆞᄃᆞㅣ 妙莊嚴ᄉᆞᄂᆞᆫᄉᆞ<華嚴16,8>

2-1) 又觀此身 無有眞實 …… 九孔常流人所惡賤 / 又ᄂᆞᆫㄱ 此ㅣ 身ㄹ 眞實 無ᄀᆞ(有)…… 九孔ᄀᆞ 十 常ㅣ 人ㄹ 惡賤ᄂᆞᆫ 所ᄉᆞ 流ᄂᆞᆫᄀᆞᄂᆞᆫᄐᆞᄆᆞㄱ ᄉᆞᆫ 觀ᄂᆞᆫᄀᆞ<華嚴疏16,6>

---

9) 借字表記에는 'sto'의 s, 또는 硬音을 表記하는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1-1) '[又]ㄱ'의 '又'가 不讀字이고 2-1) '又ㅅㄱ'은 訓의 懸吐가 없어 讀字이다. '又'의 全訓讀 懸吐 ㄱ의 표기는 <華嚴>에서만 2회 나타나고 <華嚴疏>, <金光>, <舊仁>, <瑜伽> 등에서는 모두 100餘回의 用例가 나타나지만 그 全訓의 표기를 보여 주지 않는다.

2.25. 亦 ㄱ/to(補助詞), ㄱ/sto(接續詞)

漢文의 接續詞인 '亦'은 釋讀口訣에서 補助詞 'ㄱ/to'나 接續詞 'ㄱ/sto', '亦ㅅㄱ/stohʌn'으로 읽히고 간혹 音讀도 된다.

1-1) 於法及僧 亦如是 / [於]法ᄋᆞ 及ᄒᆞ 僧ᄋᆞㅅᄉᆞᆼᄒᆞ [亦]ㄱ [是]ㅣ [如]ᄒᆞᆫᄃᆞᆺᄒᆞᆫᄃᆞᆫ<華嚴9,17>

1-2) 譬如大海金剛聚……無盡 菩薩功德聚亦然 / 譬ᄉᆞᆫㄱ 大海ᄒᆞᆫᄒᆞ 金剛聚ㄱ ……盡ᄑᆞ 無ㄱ [如]ᄒᆞᆫ 菩薩ᄑᆞ 功德聚 [亦]ㄱ 然ᄒᆞᆫᄂᆞㅣ <華嚴14,14>

2-1) 凡所受物 悉亦如是 / 凡ᄆᆞᆫ 受ᄒᆞᆷᄑᆞ 所ᄒᆞ 物ᄒᆞ火ᄒᆞᄒᆞᄑᆞᄉᆞᆫㄱ 悉ᄒᆞᆫ [亦]ㄱ [是]ㅣ[如]ᄒᆞᆫᄉᆞᄅᆞᄒᆞᄒᆞᆫ<華嚴疏9,12>

3-1) 菩薩觀 亦然 / 菩薩ᄒᆞ 觀ㄱ 亦ㅅㄱ 然ᄒᆞᆫᄂᆞㅣ<舊仁15,10>

1-1)과 1-2)의 '[亦]ㄱ'는 그 앞에 쓰인 吐나 體言에 이어져 補助詞 'ㄱ/to'로 읽힌 예이다. 2-1)의 '[亦]ㄱ'는 懸吐는 앞의 것과 동일하지만 副詞 '悉ᄒᆞᆫ'가 있어 接續詞 'ᄯᅩ/sto'로 읽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1)의 '亦ㅅㄱ'은 'ᄯᅩᄒᆞᆫ/stohʌn'으로 읽은 예이다. 1-1), 1-2), 2-1)의 '亦'이 不讀字이고 3-1)은 讀字이다.

2.26. 復 ㅱ/sto

漢文에서 副詞 또는 接續詞로 쓰이는 '復'은 新增類合에서 그 訓을 '다시', '도로'로 붙였고 15세기의 佛經諺解에서는 '또'로 옮겼었다. 釋讀口訣에서는 'ㅱ'를 懸吐하고 있다.

1-1) 或狹小 或復有成 或有壞 / 或 狹小ᄂᆞᆫ ᄆᆞᅀᆞ 或ᄂᆞᆫ [復]ㅱ 有ᄒᆞ 成ᄒᆞᄀᆞ ᄆᆞᅀᆞ 或ㅱ 有ᄒᆞ 壞ᄒᆞᄀᆞ ᄆᆞᅀᆞ<華嚴15,12>

1-2) 此法者……非近非遠 復作是念 / [此]ㅣ 法ᄀ [者]……近 非ᄆᆞᅀᆞᆫ 遠 非ᄆᆞᄀᆞ ㅣ ᄒᆞᄃᆡ ᄂᆞᄒᆞᆫ [復]ㅱ [是]ㅣ 念ᄒᆞ 作ᄂᆞᄒᆞᄆᆞᆫ<華嚴疏14,3>

2-1) 六方亦復如是 / 六方ᄒᆞᄃᆡᄒᆞᆫ 亦ᄂᆞᆫ 復ᄒᆞ [是]ㅣ [如]ㅣ ᄂᆞᄆᆞᄒᆞᆫ<舊仁3,11>

2-2) 信行具足 復有五道一切衆生 / 信行ᄒᆞ 具足ᄂᆞᆫᄒᆞᆫ 復ᄂᆞᆫ 五道ᄃᆞ 一切衆生ㅣ 有ᄃᆞᄒᆞᆫ <舊仁2,1>

1-1)에서는 接續詞 '或ᄂᆞᆫ'에 이어지고 있어서 文法上 '[復]ㅱ'를 助詞로 읽을 수는 없다. 1-2)에도 'ᄂᆞᄒᆞᆫ/hʌkiŏmiŏ'의 '-ᆫ'의 뒤에 오므로 역시 '[復]ㅱ'를 助詞나 語尾로 볼 수 없다. 이들은 '復'의 全訓讀 'ㅱ/sto'를 懸吐한 것이다. 2-1)의 '復ᄒᆞ'의 'ᄒᆞ/o'는 '復'의 訓 'sto'의 末音을 添記한 것이고 그 앞의 '亦ᄂᆞᆫ'은 '[亦]ㅱᄂᆞᆫ(또ᄒᆞᆫ)/stohʌn'에서 'ㅱ/sto'의 표기를 省略한 것이어서 'ㅱ/sto'의 表現이 重複된 것이다. '[復]ㅱ'의 懸吐는 <華嚴疏>와 <華嚴>에 모두 5例가 나타나고 다른 文獻에는 ㅱ를 懸吐한 예가 없다.

2.27. 或 ㅱ/sto

漢文에서 '或'은 '選擇'의 기능을 나타내는 接續詞인데 國語로는 '或은……'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列擧'의 機能과 '又'의 機能, 또는 '有'의 뜻으로도 쓰인다.

1-1) 時或有人來 白王言 大王當知 / 時十 或ㄱ 有ナㅣ 人ㄲ 來ㅅㅋ尓 王ヲ十 白ㅋ 言白ナ尸丁 大王下 當ハ 知ロハゐ立<華嚴疏10,17>

2-1) 或乞國土 或乞妻子 / 或ㅅㄱ 國土し 乞ㅅ尸カㅅか 或ㅅㄱ 妻子し 乞ㅅ尸カㅅか<華嚴疏12,13>

2-2) 彼一塵內 衆多刹……或復有成 或有壞 或有正住 或傍住 / 彼 一ㄱ 塵しㅆハ 內ㅋヒ 衆ㄱ 多ㄲㄱ 刹ㄱ ……或ㅅㄱ [復]ㄱ 有ナㅣ 成トㄱ矣ㅅ 或ㄱ 有ナㅣ 壞トㄱ矣ㅅ 或ㄱ 有ナㅣ 正住ㅅㄱ矣ㅅ 或ナㅣ 傍住ㅅㄱ矣ㅅ<華嚴15,12>

3-1) 或思惟止相 或思惟擧相 / 或 止相し 思惟ㅅき 或 擧相し 思惟ㅅき <瑜伽24,7>

1-1)의 '或ㄱ 有ナㅣ'는 現代國語로는 '或 있기도 하였다'로 解釋되어 選擇의 뜻을 내포한 '-기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或'에 'ㄱ/to'를 현토하였다. 이것은 現代國語에는 없는 표현인데 이 釋讀口訣에서는 앞의 '又, 亦, 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或'을 'sto'로 읽음을 표시하여 不讀字로 釋讀한 것으로 생각된다. 2-1)에서는 '或ㅅㄱ'이 2회 사용되어 選擇의 機能을 한 것인데 뒤의 '乞ㅅ尸カㅅか'에 포함된 ㄱ와 呼應되고 있다. 이 경우 '或ㅅㄱ'도 'stohʌn'으로 읽을 것인가 '或'을 音讀할 것인가가 問題로 제기된다. 이 問題는 2-2)의 '或ㅅㄱ [復]ㄱ'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는 2.26. 2-1)의 '亦ㅅㄱ [復]ㄱ'에서 본 바와 같이 '或ㅅㄱ'도 'カㅅㄱ/stohʌn'으로 읽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1)에 2회 나타나는 '或'은 音讀된 것으로 보인다.

이 '或ㄱ'의 표기는 <華嚴疏>와 <華嚴>에만 나타난다. 이 '或'을

音讀하지 않고 訓讀만 하여 'ㅁ/sto'로 읽었을 때 '又, 亦, 復'와 뜻이 같아서 區別되기 어려운 難點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後考를 요한다.

2.28. 哉 ᄀᆡ/siŏ

漢文의 語氣詞 '哉'는 釋讀口訣에서 感歎의 뜻으로 2번 사용되었다.

1-1) 文殊師利菩薩 告智首菩薩 言善哉 佛子 / 文殊師利菩薩ㄱ 智首菩薩ㄴᆞᆯ 告ᄉᆞᆸ 言ᄒᆞᆫᄃᆞ 善ᄒᆞᆫㄱ[哉]ᄀᆡ 佛子ㅣ<華嚴2.10>

1-2) 賢首菩薩 以偈答曰 善哉 仁者 應諦聽 / 賢首菩薩ㄱ 偈ᄂᆞᆯ 以ᄒᆞᆫ 答ᄉᆞᆸ 曰ᄒᆞᆫᄃᆞ 善ᄒᆞᆫㅁㅗㄱ[哉]ᄀᆡ 仁者ㅣ 諦ㅋㅣ 聽ᄒᆞᆷᄆᆞᅀᆞ [應]ᄒᆞᅀᆞᄂᆞᆫ<華嚴9,2>

1-1)과 1-2) 모두 <華嚴>에 나타난 것인데 'ᄀᆡ/siŏ'가 語尾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語尾와 分離하여 '哉'자에 직접 懸吐하였다. '哉'와 'ᄀᆡ'의 文法的 機能을 當時人들이 분명하게 認識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10]

2.29. 耶 ᄒᆞᅀᆞ/-sko-

'耶'는 疑問을 나타내는 語氣詞로 <瑜伽>에 2번 쓰였다.

1-1) 不生憂慮 謂我我今者 何所在耶 / 憂慮ᄂᆞᆯ 生ㅋᆞᆸᄌᆞ 謂ᄃᆞᆫ 我ᄅᆞᆯ 我ㄱ 今ᄇᆞᆫ[者] 何ᄆᆞᆫ 所ᄒᆞᆫ十 在ᄉᆞᆺㄱᆞㅋᆞᆸᄒᆞᅀᆞᄃᆞᆫ[耶] 不ᄉᆞᆼᄌᆞᄒᆞᆨㄱᆞㅋᆞᆸᄒᆞᅀᆞᄂᆞᆫᄃᆞᆫ矣ᄀᆞ<瑜伽8,19>

---

10) ᄀᆡ를 '彼'자의 약체로 보아 '뎌/tiŏ'로 읽는 견해가 있으나 受容하지 않는다.

1-2) 心无驚怖 謂我我今者 何所在耶 / 心ㅣ十 驚怖ㅅㅣㅎ 謂尸 我ㅋ 我ㄱ 今ㅌ[者] 何ㅎ 所ㅣ十 在ㅅㅈㄱㅛㅣㅎㅗㄴ尸[耶] 无ㅎㅅㅏ ㅎㅗㅣ<瑜伽25,21>

1-1), 1-2)의 '耶'는 모두 '在ㅅㅈㄱㅛㅣㅎㅗㅅ-'의 '-ㅗ/sko-'에 對應한다. 이와 같이 語氣詞에 대한 吐는 그 앞에 쓰인 漢字의 토에 包含시킨다.

2.30. 徧 ㅏㅣ/mata

'徧'의 訓은 新增類合에서 '두루/turu'로 달았으나 釋讀口訣에서는 'ㅏㅣ(마다)/mata'로 懸吐하였다. 'ㅏㅣ/mata'는 15世紀 國語에서는 補助詞이지만 釋讀口訣에선 副詞로 쓰였다.

1-1) 無量佛坐華上 示現十方靡不徧 悉能調伏諸衆生 / 量ㅛ 無ㄱ 佛ㅛ 華上ㅣ十 坐ㅅㅣ 十方ㅣ十 示現ㅅ尸ㅁ 不多 [徧]ㅏㅣㅅㄱ 靡ㅌ ㅣㅎ 悉ㅣ 能ㅈ 諸ㄱ 衆生ㅣ 調伏ㅅㅌㅎ<華嚴13,3>

1-2) 於一念頃 徧十方 如月光影 靡不周 / [於]一ㄱ 念ㅌ 頃ㅌㅣ十 十方ㅣ十 [徧]ㅏㅣㅅ尸ㅁ 月光影 如ㅈㅅㅣㅎ 周ㅌㅅ尸 不ㅅ尸丁ㅅ尸 靡ㅌㅣ<華嚴14,17>

'[徧]ㅏㅣ'의 全訓讀 懸吐는 모두 <華嚴>에만 나타난다. 다른 釋讀口訣에서는 이 漢字가 쓰일 機會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31. 暫 ㅕ火ㅌ/sapŭrs

'暫'의 訓은 新增類合에 '잠깐'으로 나온다. 이는 漢字語이니 固有語

로 된 訓은 後期中世國語 以後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釋讀口訣에선 <舊仁>에 그 訓이 '氵火七(사붌)/sapŭrs'로 나타나 15세기에는 이미 消滅된 古代語의 單語를 보여 준다.

1-1) 一切衆生暫住報 登金剛原 居淨土 / 一切 衆生丁 [暫]氵火七 報阝+ 住ソロ丁乚 金剛原阝+ 登ソ去八=丁刂氵 淨土阝+ 居ソ=ろ亠七丨 <舊仁11,7>

2-1) 爲……暫止飢渴 攝受梵行 / 暫七 飢渴乚 止阝ホ 梵行乚 攝受ソ亠ソ [爲]人ノ矛丁刂阝七丨ソ今<瑜伽19,15>

1-1)의 '[暫]氵火七'이 그 全訓讀을 보여 준다. 2-1)의 '暫七'은 그 末音만을 보여 주는 讀字이다.

2.32. 言 乃/nai

願往生歌의 '惱叱古音'의 註釋에 '鄕言 云報言也'라 있어 古代國語에는 '말하다類'의 동사에 '惱叱/nois-' 또는 '惱/noi-'라는 形態가 있음을 推定할 수 있다. 釋讀口訣에서는 '言'의 訓으로 '乃/nai-'를 보여 주고 있다.

1-1) 佛言 善男子 又有五法 / 佛丁 [言]乃=尸 善男子阝 又 五法 有七ナ丨 <金光3,22>

2-1) 佛言 善男子 依此五法 / 佛丁 言刂=尸 善男子阝 此 五法乚 依阝 <金光4,19>

1-1)의 '[言]乃-'의 吐가 그 全訓을 보여 주는 것이다. 2-1)의 '言刂-'는 그 末音添記 '刂/i'를 보여 주는 것이다. '言'의 全訓讀 表記 '乃-'는

<金光>에서만 7번 나타나고 다른 文獻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33. 輟 捨/pʌri-

'輟'의 訓은 新增類合에 '그치-'로 나와 있다. 이 漢字가 僻字일 뿐 아니라 '버리-'의 뜻으로 쓰이는 것도 흔한 用法은 아니다. <華嚴疏>에서 이 '輟'에 대하여 '捨/pʌri-'로 全訓을 懸吐하여 不讀字로 釋讀한 것은 그 漢字의 使用頻度가 낮고 그 訓이 드물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1) 此菩薩 得種種上味……資生之具……若輟己施施 則窮苦夭命 /
[此]ㅣ 菩薩ㄱ 種ㄴ 種ㄴ 上味ㅅ……資生ㄴ[之] 具ㅅㅅ/ㅎㄴ 得ㅈ
ㅏ……若ㄴ 己ㅋ/ㅎ ㄴ [輟]捨ㅁ 人ㅎㅋ/ㅎ 施ㅅㄱㅣㅓㄱ 則ㅊ 窮苦
ㅅㅈ尒 夭命ㅅ/ㅎ ㅌㄱㄴ<華嚴疏10,6>

'[輟]捨ㅁ'에서 토로 쓰인 '捨'는 口訣字로서는 현재 唯一한 것이다. 그러나 '捨ㅁ'와 같이 그 뒤에 'ㅁ/ko'를 이어 쓴 것을 보면 '輟'자의 釋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訓讀하기 위하여 쓰인 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全訓讀 표기는 註釋을 위한 성격을 띤 것이다.

2.34. 吾 ㅈㄹ/ul, uli

漢文에서는 人稱代名詞의 單數와 複數의 구별이 없다. 文脈에 따르거나 '輩, 等, 曹'와 같은 語助辭를 뒤에 붙이어 區別한다. 그러나 國語에서는 1人稱의 경우 '나'와 '우리'로 單·複數가 語彙上으로 구별된다. 釋讀口訣에서 '我'나 '吾'가 單數로 쓰일 때는 懸吐를 따로 하지 않는다. 複數로 쓰일 때 그 全訓을 懸吐하여 不讀字로 釋讀한 예들이

나타난다.

1-1) 吾曹今者 各有所求 / [吾]ㅈㅁ 曹ㄱ 今ㅅㄱ[者] 各ㄱㅈ 求ㅅㅁ 所ㄴ [有]ㅐㅁㄴㅌㄱ ㄲㅍ<華嚴疏12,12>

2-1) 爾時 佛告大衆……吾今先爲諸菩薩…… / 爾ㄴㅅㄱ 時十 佛ㄱ 大衆ㅋ十 告ㅅㄷㅁ……吾ㄱ 今ㅅㄱ 先ㄱ 諸ㄱ 菩薩 [爲]ㅎㅊ……<舊仁3,18>

1-1)의 '[吾]ㅈㅁ'은 그 뒤의 '曹'로 보아 複數임을 알 수 있다. 'ㅈㅁ'은 'ul'로 읽히는데 후대의 '우리/uli'와는 形態的으로 差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鄕歌(請佛住世歌)에 '吾里/uli'가 쓰인 것을 보면 두 語形이 共存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1)은 '吾'가 單數로 쓰인 例로 이 경우에는 訓을 표시하지 않는다.

2.35. 我 ㅈ, ㅌ/ul, uli

1-1) 我等欽風 故來至此 / [我]ㅈ [等]ㅣㅅㄱㄱ 風ㄴ 欽ㅌㅁㅌㅅㅁㅅㅁ 故ㅗ 來ㅅㄱㅈ [此]ㄲㅁ 至ㅗㅁㅌㅅㅣ<華嚴疏12,11>

2-1) 我等 爲作救護利益 / [我]ㅌ 等ㅅㄱㄱ 爲ㅅ 救護ㅅㅎ 利益ㅅㅎㅅㅁㅅㅍㄴ 作ㅅㄱㅈ<金光15,13>

2-2) 大覺世尊 前已 爲我等大衆 二十九年說…… / 大覺世尊ㄱ 前ㅋ 已(ㅎ) [我]ㅌ 等ㅅㄱ 大衆ㅋ [爲]ㅎㅊ 二十九年ㅈ十ㅅㄷㅜ……說ㅈㅅㄷㅁㅣ<舊仁2,21>

3-1) 爾時文殊師利菩薩……問賢首菩薩曰 我今已爲諸菩薩 / 爾 時十 文殊師利菩薩ㄱ…… 賢首菩薩ㅁ十 問ㅈ 曰ㄷㅁ 我ㄱ 今ㅅㄱ 已(ㅎ) 諸ㄱ 菩薩ㅁ 爲ㅎ<華嚴8,23>

1-1)의 '[我]ㅈ'와 2-1), 2-2)의 '[我]ㅜ'는 口訣字만 다를 뿐 '我'의 訓 'ul' 또는 'uli'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경우의 '我'를 우리는 不讀字로 보아 왔다. 3-1)의 '我ㄱ'과 같이 單數일 때는 그 訓이 표시되지 않는다.

2.36. 時 ㅓ/pskŭi

15世紀 諺解에서 '時'는 대체로 'ᄲᅴ/pskŭi', 'ᄠᅢ/pstai'로 풀이되고 있다. 釋讀口訣에서도 '時'는 이 단어들로 訓讀된다.

1-1) 爾時 菩薩作是念言 / 爾ㅔㅅㄱ [時]ㅓ 菩薩ㄱ [是]ㅣ 念言ㅅ尸ㅅ ㄴ 作ㅅㄴ尸丁<華嚴疏11,2>

2-1) 著瓔珞時 當願衆生 捨諸僞飾 / 瓔珞ㄴ 著ㅅㄷㄱ 時ㅗㅓㄱ 當願衆生 諸ㄱ 僞飾ㄴ 捨ㅅㄹㅇㅅ<華嚴3,>

2-2) 宜時 疾捨 以濟衆生 / 宜ㄱ 時ㅣㅓ 疾ㅣ 捨ㅅㅋㅅ 以ㅋ 衆生ㄴ 濟ㅣ尸丁ㅅㄴㅎ<華嚴疏11,4>

1-1)의 '[時]ㅓ'는 그 앞의 '爾ㅔㅅㄱ'이 '그엿ᄒᆞᆫ/kŭiŏshʌn'으로 訓讀되는 것으로 보아 文脈의 흐름상 '[時]ㅓ'도 訓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世紀 佛經諺解에서 '爾時'가 '그 ᄲᅴ'로 諺解되는 것으로 보면 이 口訣의 '[時]ㅓ'는 'ᄲᅴ'로 읽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借字表記法에서 語頭의 'ps'를 표기하는 方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時]ㅓ'의 'ㅓ/kŭi'는 '時'의 全訓 'pskŭi'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時'는 不讀字가 된다. 2-1)의 '時ㅗㅓㄱ'의 'ㅗㅓ/iŏkŭi'는 주로 '時'자에만 連結되고 있다. '時ㅗㅓㄱ'의 앞에 오는 單語들이 漢字語인 점을 考慮하면 이 單語도 音讀한 것으로 보게 된다.[11] 2-2)의 '時ㅣㅓ'는 'ᄲᅢ이긔/pstaiikŭi'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ㅣ/i'는 'ᄠᅢ/pstai'의 末音을

添記한 것으로 본다.

3. 結 語

이상에서 高麗時代의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35字 36項의 不讀字들을 살펴 보았다. 이 不讀字는 대체로 訓讀字들이다. '[時]+'도 虛辭字에 넣으면 그 수는 늘어난다. 그 訓의 全訓을 吐로 나타내느냐, 또는 訓의 表示를 전혀 하지 않거나 末音만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不讀字와 讀字로 나뉘게 된다. 이 글에서는 訓의 頭音만을 표기한 것도 不讀字로 보았다. 이제까지 檢討한 것을 整理하여 보기로 한다.

1. 不讀字 가운데 '有/ㅛ-', '言/ᄀᆞ-', '暫/ᄌᆞ火七', '徧/ᄐᆞ ㅣ', '輟/捨-', '時+' 등은 實辭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 虛辭字들이다. '有/ㅛ-', '言/ᄀᆞ-', '暫/ᄌᆞ火七', '徧/ᄐᆞ ㅣ'는 초기에 全訓讀 현토를 자주 하던 관습에서 나온 擬古的인 表記가 아닌가 한다. 이들은 각각 한 文獻에서 극히 제한된 數가 쓰였다. '輟/捨-'의 경우는 註釋的인 性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虛辭字들로 不讀字로 釋讀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代名詞; 之, 是, 此, 斯, 我, 吾
小品詞; 者, 之
助動詞; 爲, 令, 欲, 應
形容詞; 如, 若, 等
連詞(接續詞); 爲, 因, 由, 雖, 乃, 又, 亦, 復, 或
介詞; 於, 于, 爲, 以, 用, 與
語氣詞; 者, 哉, 耶

11) '上ㅗ+<金光6,19>'의 例外가 唯一하게 있다. 이는 '上'의 訓에 末音이 'i'를 가진 形態가 있어 그 音에 緣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不讀字 35자 가운데 29자를 차지하는 것이다. 즉 부독자의 대부분은 虛辭字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漢文을 습득함에 있어 그 文法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나온 것이 不讀字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不讀字의 訓을 어디에 懸吐하느냐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체로 訓은 不讀字에 직접 붙여서 懸吐한다. 다만 '者, 之, 於(于), 乃, 耶'와 같이 國語의 助詞나 語尾에 해당하는 訓은 이들 不讀字에 붙여서 懸吐하지 않고 그 앞이나 뒤에 오는 構成素에 懸吐한다. '爲'자의 訓 'ᄉᆞ-'는 '爲'자에 직접 懸吐하는 것과 分離하여 懸吐하는 것이 混用되었다. '哉'의 訓 'ㅣ'는 語尾인데도 '哉'자에 직접 懸吐한 것이 색다르다.[12] 또 '乃'와 '之'자는 그 글자의 속에 懸吐하여 같은 것이 二重으로 읽히는 것을 방지하였다. 全訓讀의 吐를 不讀字의 앞과 뒤로 나누어 懸吐하는 경우가 있다. '-ㅣ尸 [爲]ㅅᄂᆞᆫᄉᆞ-', 'ᄂᆞᆫ[令]ㅣ-', '-ᄒᆞ [應]ᄒᆞᆫᄉᆞ-', '-ㅅ[雖]ㅛ'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ㅣ尸 [爲]ㅅᄂᆞᆫᄉᆞ-'는 <金光>에서는 '-[爲]ㅣ尸ㅅᄂᆞᆫᄉᆞ-'로 한데 모아서 현토하기도 하였다.

4. 不讀字와 讀字는 懸吐者, 곧 釋讀者의 趣向에 따라 左右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漢字가 같은 文獻에서 變動을 보일 수가 있다. 즉 같은 漢字가 같은 文獻에서 大部分 不讀字로 쓰이는데 小數의 경우에 讀字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是'는 <華嚴>에서 거의 不讀字로 쓰이는데 <華嚴15,19>의 '是 如ᄒᆞᄂᆞᆫᄃᆞ'에서는 讀字로 쓰였다. '令'자는 'ᄂᆞᆫ令ㅣ'나 '令ㅣ'로 현토되는 것이 一般인데 'ᄂᆞᆫ令-'로 懸吐되어 讀字가 된 것도 그러한 것이다.

5. 이 趣向은 個人의 範圍에 그치지 않고 어떤 學派나 宗派에 따라 하나의 傾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傾向은 같은 宗派의 서로 다른 文獻에서 공통되는 現象이 나타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華嚴疏>

12) 이는 釋讀이 漢字學習의 便宜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와 <華嚴>의 釋讀口訣은 時代와 記入者가 다른 資料이지만 不讀字에 있어서 상당한 共通性을 보여 주고 있다. 즉 [是]ㅣ, [此]ㅣ, [等]ㅣㅅㄱ, [亦]ㄲ, [復]ㄲ, [或]ㄲ와 같은 不讀字는 이 두 자료에만 나타나고 <金光>과 <瑜伽>에는 모두 讀字로 나타난다. 우리는 点吐釋讀口訣에서 그 點圖가 華嚴宗 계통과 法相宗(唯識宗) 계통으로 나뉘어 서로 對立的인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아 왔다.[13] 위의 不讀字들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漢字들임에도 불구하고 華嚴宗과 法相宗이 따로 系統을 이루어 서로 갈리고 있음은 單純한 偶然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 차이는 시대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6. <華嚴疏>는 不讀字가 많이 쓰일 뿐 아니라 訓을 省略 없이 나타내는 傾向을 보인다. [爲]ᄒᆞ, [因]ᄒᆞ, [以]ᄒᆞ을 보면 'ᄒᆞ'은 다른 文獻에서는 주로 ᄒᆞ로 나타내어 m 소리를 省略하여 懸吐하는데 正字를 쓰는 점, ᄒᆞ의 字形도 <華嚴>에서는 ᄒᆞ로, <瑜伽>에서는 ㅡ로 省劃하여 사용하는데 全字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다른 文獻과 달리 '因'과 '以'의 全訓을 보여 주는 점 등이 그것이다. 본래 <華嚴疏>는 文法에서도 古形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懸吐에 있어서도 그 古形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不讀字가 上代에는 자주 쓰이다가 후대로 오면서 讀字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宗派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7. 漢文과 國語의 表現構造에 差異가 있어서 不讀字가 된 것에 'ㄴᆞᆷ/lo + [之] + NP'의 '之'가 있다. '者'의 경우나 '無有'에서 '有'가 不讀字가 된 것도 두 言語에 表現構造上 차이가 있는 데서 온 것이다.

---

13) 拙稿(2007), 「韓國古代口訣の種類とその変遷について」, 『訓点語と訓点資料』 118, 日本 訓点語學會,(2005년 5월 日本 東方學會 50周年紀念 學術大會 發表論文) 참조.

參考文獻

金永旭(2003),「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硏究」,『口訣硏究』10, 口訣學會.
南豊鉉(2007),「韓國古代口訣の種類とその変遷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18, 日本 訓点語學會.
尹幸舜(1999),「韓日 漢文釋讀에서의 不讀字의 讀法」,『訓点語と訓点資料』103, 日本 訓点語學會.
_____(2004),「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訓点에 나타나는 華嚴經의 不讀字 用法」,『口訣硏究』13, 口訣學會.
楊伯俊著・波多野太郎外譯(1956),『中國文語文法』, 江南書院, 日本 東京.
小林芳規(2002),「韓國の角筆点と古訓点との關係」,『口訣硏究』 8, 口訣學會.
太田辰夫著(1981),『中國語歷史文法』, 朋友書店, 日本 京都.

〔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양지원 빌딩 5층〕
E-mail: namph1935@empal.com
접수일자: 2006. 12. 15.
게재결정: 2007. 01. 22.

字吐釋讀口訣の不讀字に就いて考察

南豊鉉

漢文を釋讀する際、漢字の機能や訓が吐に表記されていて、讀まない漢字を不讀字という。この不讀字は釋讀口訣の表記法を見せてくれるもので、漢文を韓國語に讀んで、その受容する様子も見せているものである。これは日本の漢文訓讀ともその脈絡が繋がることである。字吐釋讀口訣に現れる不讀字は計35字であった。そのうち、29字が虛辭字で、實辭は6字であるが、これは古代人が漢文の文法を消化する様子を見せてくれものである。同様の文字が宗派または時代によって不讀字になったり、讀字にもなったりした。不讀字のほとんどが訓讀字であるが、漢文の文法や表現が韓國語と相違があって、讀まれない不讀字になったものもある。不讀字の機能や訓を表す吐は不讀字の漢字に直接施す場合と分離されて現れる場合があり、時には漢字の中に書き入れる場合もあった。

キーワード: 不讀字、讀字、日本の漢文訓讀、虛辭字、漢文文法の受容の様子